

정책연구
2021-21

사회적 경제의 임팩트 투자 모델 탐구

이상준 · 신현상 · 김윤정 · 김하은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상준)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 범위와 대상	2
1. 자본주의 유형론: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2
2. 사회적 경제	3
3.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5
4. 소셜벤처	6
5. ESG와 임팩트 투자	6
제3절 연구 질문	7
제4절 연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7
1. 연구 방법	7
2. 보고서의 구성	8
제2장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	(이상준) 10
제1절 소셜벤처의 제도화	10
1. 소셜벤처 명명(naming)과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포섭 ...	10
2. 소셜벤처 판별기준 도입과 개정	12
3.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도입	17
4. 사회적 가치 측정의 제도화	21

제2절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	23
1. 소셜벤처 창업 지원	23
2. 소셜벤처 지원기관 양성	28
3. 특수 분야 소셜벤처 창업·성장 지원(도시·주택 분야)	29
4. 소셜벤처를 포함한 일반 벤처 지원(TIPS)	32
5. 창업지원 종합 체계(중기부)	33
6. 중 합	36
제3절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	37
1. 사회적기업법과 서울시 육성 정책	37
2.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	43
제4절 소 결	45
1. 소셜벤처 정책체계의 명암: 개발국가형 통제와 개입	45

제3장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

..... (신현상·김윤정·김하은·이상준)	48
제1절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 개요	48
1. 임팩트 투자의 개념	49
2.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등장과 형성	51
제2절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 조사	53
1. 조사 개요	53
2. 조사 대상 임팩트 투자기관 정보	59
3. 조사 결과	61
제3절 국내 임팩트벤처 대상 조사	86
1. 조사 개요	86
2. 조사 결과	91
제4절 소 결	109
1. 연구 결과의 시사점	109
2. 향후 연구 방향	114

제4장 결 론	(이상준 · 신현상)	115
제1절 종합 검토		115
1.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		115
2.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		117
제2절 정책 제언		122
1. 사회적 경제에 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영향평가> 도입 ...		122
2.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126
참고문헌		128

표 목 차

<표 1- 1> 보고서의 구성	8
<표 2- 1> 소셜벤처 기업 관련 주요 법 규정	11
<표 2- 2> 소셜벤처 판별기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2021년 기준)	12
<표 2- 3> 소셜벤처 판별기준 주요 변경 내용	16
<표 2- 4>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등급	18
<표 2- 5>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의 주요 내용	18
<표 2- 6>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중 사회성 평가 항목	19
<표 2- 7>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중 혁신성장성 평가 항목 (제조업)	20
<표 2- 8>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중 혁신성장성 평가 항목 (서비스업)	20
<표 2-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연혁	21
<표 2-10> 창업(희망)자 대상 지원사업	23
<표 2-11> 디딤돌 창업기업과제 세부 유형	25
<표 2-12>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27
<표 2-13> 소셜벤처 육성사업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29
<표 2-14> LH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절차	30
<표 2-15> LH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Start-Up 심사기준	30
<표 2-16>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Scale-Up 심사기준	32
<표 2-17> 2021년 TIPS 창업기업 지원내용	33
<표 2-18>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내용	34
<표 2-19> 사회적기업의 인증대상자	38

<표 2-20>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비교	39
<표 2-2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40
<표 2-22> 20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	44
<표 3- 1> 임팩트 투자의 개념적 정의	49
<표 3- 2> 임팩트 투자기관 심층 인터뷰 일반 질문(1부) 구성	55
<표 3- 3> GP 심층 인터뷰 세부 질문(2부) 구성	56
<표 3- 4> LP 및 중간지원조직 심층 인터뷰 세부 질문(2부) 구성	58
<표 3- 5> 임팩트 투자기관의 기본 정보	59
<표 3- 6> 임팩트 투자기관의 주요 투자 분야	60
<표 3- 7> 임팩트 투자기관의 현재와 향후 임팩트 투자 분야	65
<표 3- 8> 임팩트 투자기관의 투자 집행 방식별 비중	67
<표 3- 9> 임팩트 투자 집행 단계 구성 비중(투자금액 기준)	68
<표 3-10> 임팩트 투자기관의 재무성과 및 사회성과의 고려 비중 ·	69
<표 3-11> 임팩트 투자기관별 인재 채용기준 특징	79
<표 3-12> 임팩트 분야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지원의 예	81
<표 3-13> 임팩트 투자기관의 정책지원 요청	85
<표 3-14> 임팩트벤처 기본 정보 문항	87
<표 3-15> 임팩트벤처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문항	88
<표 3-16>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 문항	90
<표 3-17> 임팩트벤처의 기업유형 및 사회문제 해결 분야	92
<표 3-18> 임팩트벤처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고려 수준	94
<표 3-19> 임팩트벤처의 사업 운영 시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고려 비중	94
<표 3-20>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정의 내용	95
<표 3-21>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활동 현황	97
<표 3-22>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결과 공유 희망 대상	98

<표 3-23>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에 대한 인식	99
<표 3-24>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에 대한 인식	100
<표 3-25>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활용 목적 ...	100
<표 3-26>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	101
<표 3-27> 임팩트벤처가 생각하는 일반 투자와 임팩트 투자의 차이점	101
<표 3-28> 임팩트벤처가 경험한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어려움 ...	103
<표 3-29> 팩트벤처가 경험한 임팩트 투자 유치 과정 어려움	104
<표 3-30>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사에 대한 기대 수준 및 만족도	105
<표 3-31> 임팩트벤처의 향후 2년 이내 임팩트 투자 유치 목표 금액 및 임팩트 투자 유치 예상 확률	106
<표 3-32> 설문 대상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 유치 기회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107
<표 3-33> 임팩트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임팩트벤처의 제안	107
<표 4- 1> 비영리와 영리 조직 구분의 맹점	123
<표 4- 2>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제언	126

요 약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주목받으며 부상하고 있다. 서구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협동조합(cooperative), 소셜벤처(social venture) 등 다양한 조직 형태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정비되어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싹을 틔웠고 점차 성장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 담론에서 기업 조직은 수익 극대화(profit maximization)를 기업의 목적이자 목표로 삼았다면, 사회적 경제 담론에서 앞서 언급한 형태의 기업 조직은 수익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그 목적과 목표로 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환경, 공동체, 사회 문제를 기업 조직의 경영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넘어서서 기업이 활동하는 영역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은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이른바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관점에서 공동체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후 위기, 교육 격차,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싹 틔우고 길러내는 이른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에 주목한다. 간결하게 표현하면,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financial returns)과 사회적 편익(social returns)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조직에 투자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재무적 지표로만 기업의 사업 구조와 방식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는 달리, 임팩트 투자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조직에 초기 지원(seed funding) 혹은 스케일업(scale up)을 위한 투자를 제공한

다. 따라서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특히 소셜벤처의 탄생과 성장(scale-up), 생태계 전반의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

이러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대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 한국 소셜벤처 정책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소셜벤처 제도화, 평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제2장)
-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공급에 해당하는 임팩트 투자기관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수요에 해당하는 소셜벤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제3장)
- 한국 소셜벤처 정책 체계와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실태와 현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은 무엇인가? (제4장)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자료조사(archival research)를 통해 소셜벤처 관련 정책체계를 살펴본다. 이러한 자료 조사는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책을 한데 모아 소셜벤처 생태계 형성과 발전 지원 관점에서 그 명암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초점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설문조사(survey)를 통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 전반을 살펴본다. 설문조사는 실태와 현황을 조감도처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점집단 면담

은 통계와 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FGI의 경우 한국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관별 공개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와 구조화된(structured) 질문지를 바탕으로 임팩트 투자기관 대표 혹은 관계자를 집중적으로 면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을 추려내어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

제2장에서는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기업까지 포괄하여 자료 조사(archival research)를 통해 소셜벤처 정책체계를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소셜벤처의 명명(naming)과 벤처기업법 포섭, 소셜벤처 판별기준 도입과 개정,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도입,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의 제도화(SVI)를 다루었다. 제2절에서는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 지원, 초기 지원, 지원기관 양성, 소셜벤처를 포함한 일반 벤처 지원(TIPS), 창업 지원 종합 체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기업법과 서울시 육성 정책,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의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강한 국가(strong state),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통제(control)와 개입(intervention)이다. 개발국가 이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기 시절 강력한 관료제의 개입과 통제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성장·발전을 이끈 원동력을 제공한 국가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담론이다(Amsden, 1992; Evans, 1995). 소셜벤처 정책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해 보면, 이러한 개발국가 모형이 여전히 소셜벤처와 같은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에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셜벤처를 명명(naming)하고 판별하며 분류(categorizing)하고 체계화하여 정책 대상(target)으로 편입시키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개발국가 정책 집행 방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전까지 민간에서 자유롭게 소셜벤처로 창업했거나 활동했던 기업가들은 이제 정부(중기부)·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한 판별기준을 통과해야 비로소 ‘소셜벤처’로 인정받고 관련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은 진보적인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럿 존재한다.

소셜벤처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아래에서부터 위로(bottom-up)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조차 위에서 아래로(top-down)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분류하며 이에 여러 공적 지원(public support)이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소셜벤처 정책체계에서 행정 부처의 역할 분산이 두드러진다.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조직별 소관 부처가 다르고 법인격에 대한 인정·인증 절차와 관련 지원이 얹혀 있어 사업과 사회혁신의 관점이 아니라 법·제도의 관점에서 촘촘하게 설계된 그물망에 포섭되어야 비로소 공공 영역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제도화·지원 방식은 소셜벤처가 싹을 틔우는데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자 바탕인 사회적 상상력을 제약하고 틀에 가두어 질식시킬 위험이 크며 그 자체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셜벤처 평가체계를 보면 제조업(M) 사회성·혁신성과 서비스업(S) 사회성·혁신성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데, 다학제·다분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업모델의 경우 여러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이분법적 평가체계에서는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되어 있다. 아울러 설립·성장 유인(incentive) 형성에 개입하여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맞는 조직 형태와 구조 선택이 아니라, 창업 이후 생존까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불리는 초기 난관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공공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 조직 유형과 구조를 선택하게 만드는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면, 하버마스의 식민화(colonization) 개념과 베버의 철창(iron cage) 개념을 빌려 설명할 수 있다. 하버마스가 말한 대로 경제 체계(시장), 행정 체계(국가)와 같은 시스템(system)이 사적·공적 영역의 생활 세계(lifeworld)를 점차 체계적으로 포섭하여 식민화하는 것, 베버가 말한 대로 합리화(rationalization)에 기초한 관료제가 철창이 되어 인간을 제약하는 것, 이 모두 개발국가 정책체계에 대한 묘사가 될 수 있다. 생활세계에서 창발된(emerging)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행정 체계의 명명·판별·지원에 포섭되어야만 생존에 유리한 것,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소셜벤처의 혁신성·사회성이 수치화되어 비교될 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모두 생활세계 식민화와 합리적 관료주의 철창의 실증적 사례이다.

물론 개별기업으로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생존하면서 성장의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례도 여럿 존재하겠지만,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체계의 탄생과 형성은 그 자체로 여러 위험을 안고 있으며, 특히 행정 부처의 역할 분산에 따른 조직 범인격 간 정책지원 차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으며, 후술할 임팩트 투자 생태계는 이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

제3장에서는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임팩트

투자의 주된 대상인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에 더하여, 임팩트 지향성을 가진 일반 벤처들까지 포괄하기 위해 ‘임팩트벤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제1절에서는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개요를, 제2절에서는 공급 측에 해당하는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 조사 결과를, 제3절에서는 수요 측에 해당하는 임팩트벤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가.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제고

본 장에서는 글로벌 컨센서스를 위주로 임팩트 및 임팩트 투자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임팩트 투자자 및 임팩트벤처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향후 이러한 개념들을 한국적 맥락과 상황에 맞게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임팩트벤처 및 임팩트 투자자들과 공유하여 ‘임팩트’ 또는 ‘임팩트 투자’라는 동일한 단어에 대해 모두가 같은 또는 거의 유사한 개념적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팩트 투자자와 임팩트벤처 간의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생태계 차원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조사 결과 임팩트 투자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특히 임팩트 투자 관련 정책금융을 원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또는 세미나/워크숍 등을 제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벤처들은 사업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투자자들에게 임팩트의 의미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면 이는 지나친 부담이다.

또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시민사회, 대중, 언론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필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학계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경영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학회의 경우 현 회장(성균관대 한상만 교수) 및 차기 회장(명지대 김재구 교수, (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리더십 그룹의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들의 주도하에 다양한 분과의 경영학자들이 모여 ‘지속가능경영포럼’을 결성하고 관련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임팩트 및 임팩트 투자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위한 연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대중 인식 제고 등에 있어서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나. 임팩트 투자자의 역할

임팩트를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임팩트 투자자는 투자 대상 임팩트벤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임팩트 개념을 논의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 최대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어떤 지표를 통해 언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벤처들 중에서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비즈니스모델 및 임팩트의 양적 측면인 스케일업(scale-up)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유는 빠른 성장을 통한 재무 성과 제고 및 투자금 회수에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임팩트 투자자는 재무성과와 사회성과를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 및 스케일업의 중요성 역시 사회성과의 제고 가능성과 연계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성과가 귀속되는 수혜자 그룹이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그룹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임팩트의 질적 측면, 즉 스케일업(scale-deep)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를 임팩트

벤처와 임팩트 투자자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임팩트 투자사는 임팩트벤처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등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을 주관하는 정부 또는 자금제공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하면 임팩트벤처들이 양적인 스케일업과 질적인 스케일업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방법을 추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 투자사는 임팩트 측정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임팩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혹시 기대만큼 임팩트가 창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함께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파트너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온 교훈과 시사점을 생태계와 문서 또는 워크숍/세미나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면 한국 임팩트 생태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임팩트벤처의 역할

임팩트벤처들의 경우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임팩트를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임팩트를 정의 및 해석하고, 측정 및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사회문제를 풀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소셜미션에 반영하여 문서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의 혁신성과 시장규모, 재무적 타당성, 재무적/사회적 지속가능성, 확장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임팩트 투자자를 비롯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고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솔루션의 실행을 통해 발생하는 임팩트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선정, 측정 방법/시기 결정 등 ‘임팩트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설계를 사전에 철저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한국의 임팩트 생태계는 이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부/공공기관 및 비영리재단 등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해당 교육 콘텐츠를 문서나 동영상의 형태로 정리하고 축적하여 공공재의 형태로 공유한다면 임팩트 생태계 차원에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작 및 공유 중인 사회적 가치 콘텐츠 플랫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작 및 공유 중인 ESG 콘텐츠 플랫폼 등이 좋은 사례이다.

최근 임팩트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임팩트워싱에 대한 경계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임팩트벤처에게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자신들의 솔루션이 창출하는 임팩트를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측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숨기는 대신, 이를 공개하고 다른 이들의 지혜와 도움, 협력을 구하면서 다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임팩트벤처는 오히려 자신들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정책 제언: 〈사회영향평가〉 도입과 임팩트 투자 맞춤형 정책

가. 사회적 경제에 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영향평가〉 도입

우선,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 협동조합(기획재정부)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 자활기업(보건복지부) ·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 조

직 유형에 기반한 소관 부처 지정과 관련 정책 마련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조직 형태와 법인격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사회성, 혁신성에 초점을 맞춘 기준 확립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는 (가칭) <사회영향평가> 도입을 권고한다.

영리-비영리 구분법에 기반한 편견과 선입견, 조직 유형에 기반한 소관 부처 지정과 관련 정책 형성은 위험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는 새로 창업한 일반협동조합이 관련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하는 공공 영역과 사회적 경제를 후원하는 민간 영역의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 활용 전략에 능숙한 주체와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 환경에서 유리하며 정보에 어둡거나 그렇지 못한 주체와 조직들은 소외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일반 벤처로 창업한 기업가가 소셜벤처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 모델에 일부 사회적 요소를 가미하고 관련 지원을 신청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조직 유형별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펼쳐지면서 칸막이 만들기과 구별 짓기로 인한 시장 왜곡과 불필요한 정체성 정치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직 유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양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증가분 또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감소분을 계량화하는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지원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이를 인정하고 지원해줄 수 있다. 조직을 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책 지원 자격을 결정하지 않고, 사업 모델의 사회적 가치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책 지원을 연계한다면 조직 간 형평성(equ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법인격과 주체들 간 차별

과 중복 지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고용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이른바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유형별 소관 부처 지정과 정책 마련과 같은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조직 자체의 사회성, 혁신성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이에 연동된 정책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 그 주체로는 개별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의 정책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적절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증거 기반 정책 지원(evidence-based policy support) 체계에서 성과 측정·평가에 능숙하지 못한 조직들을 위해 조직 유형별 지원 체계 일부 유지, 성과 측정·평가 관련 교육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나.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앞서 언급한 정책 제언이 한국 사회적 경제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제도(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회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임팩트벤처) 가능성 있는 임팩트벤처에 꾸준히 투자하여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팩트 투자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제 혜택, 제도 개선, 비영리·금융 생태계 참여 활성화, 임팩트 투자기관 지원, 공공자금 참여 등을 통해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향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천년대 들어서부터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주목받으며 부상하고 있다. 서구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협동조합(cooperative), 소셜벤처(social venture) 등 다양한 조직 형태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정비되어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싹을 틔웠고 점차 성장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 담론에서 기업 조직은 이익 극대화(profit maximization)를 기업의 목적이자 목표로 삼았다면, 사회적 경제 담론에서 앞서 언급한 형태의 기업 조직은 재무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그 목적과 목표로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환경, 공동체, 사회 문제를 기업 조직의 경영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시장경제 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넘어서서 기업이 활동하는 영역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른바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관점에서 공동체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후 위기, 교육 격차,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2. 연구 목적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짚고 짚고 길러내는 이른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에 주목한다. 간결하게 표현하면,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financial returns)과 사회적 편익(social returns)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조직에 투자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 재무적 지표로만 기업의 사업 구조와 방식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임팩트 투자가 필요하다. 즉,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생태계 전반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투자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임팩트 투자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대상

앞서 언급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그 대상으로 한국의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 주목한다. 연구 범위의 경계와 그 대상이 놓인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 거시적인 자본주의 유형론부터 사회적 경제, 더 나아가 미시적인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한다.

1. 자본주의 유형론 :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기업이 자본을 제공한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익 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시카고학과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70년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기고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은 이익을 늘리는 것'이란 주장으로 프리드먼 독트린(doctrine)을 선언하였고, 주주 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가 미국 재계의 기업 지배구조 주류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72년 설립된 미국 200대 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함께 미국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이익 단체 중 하나인데, 1978년 <대형 상장사 이사회의 역할과 구성>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발간하면서 주주 자본주의를 그 이념적 근간으로 채택해 왔다. 이후 1980년대부터 주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 전략이 널리 퍼지면서 GE 잭 웰치 회장 등이 이를 지지하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고배당 지급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한 사상적 대응으로 주창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는 기업이 소비자,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조직 목표로 해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Freeman, 2010; Donaldson and Preston, 1995). 주주 자본주의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철학과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아마존, 애플, 보잉, JP모건 등의 최고경영자들이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을 내세우면서 고객, 직원, 납품업체,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21세기 기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주 자본주의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조직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2.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hybrid) 조직들로 구성된 경제 생태계이다. 한국 정책체계에 서는 주로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처럼 정형화된

법인격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정하면서 지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소셜벤처, 임팩트벤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일반벤처) 모두 사회적 경제 조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살펴본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는 어떠한 관계인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회적 경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관점과 이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국가(state)와 시장(market)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상적으로 그 뿌리를 찾아보면, 사회적 경제의 등장과 형성은 자본주의 고도화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유리된 경제활동을 다시 공동체와 생태계에 뿌리내리게(embed) 하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Polanyi, 1944).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협동조합(cooperative),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체를 포괄하며 대륙별, 권역별, 국가별로 주도적인 주체가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인 비영리 자선 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갖춘 창업자, 즉 개인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며, 유럽권(continental Europe)에서는 이탈리아 볼로냐(Zamagni and Zamagni, 2010), 스페인 몬드라곤(Johnson and Whyte, 1977; Whyte, 1995; Whyte and Blasi, 1982; Whyte and Whyte, 1988) 등 지역과 마을에 뿌리를 두고 정치적·역사적 공동체와 결합한 협동조합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권역별, 국가별 유형화는 상대적인 경향성을 언급한 것이며, 주도적인 조직 집단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공존하며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다. 그 예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에도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협동조합 생태계가 존재하며,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한 유럽연합에도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즉,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관점에서 권역별 특징이 존재하지만, 국제적인 제도적 확산 과정을 통해 개별 국가마다 여러 조직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넓은 의미에서 소셜벤처를 포괄하는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데, 사회적 기업의 수혜자는 조직 구성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포괄한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출자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므로,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수혜자는 조직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조직이 속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이 많지만, 조직의 개념만 놓고 보면 협동조합은 구성원 공동체 이익(common good)을, 사회적 기업은 공공 이익(public good)을 추구하는 차이점이 있다.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협동조합은 로컬 최적화(local optimization), 사회적 기업은 글로벌 최적화(global optimization)를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극단으로 추구하는 기업 모형의 대안으로 등장했다면,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형성된 조직들이 추구하는 공동체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공동체주의적 이상(communitarian ideal)의 실증적 구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구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은 이른바 창업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지역과 마을의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매개로 탄생하여 성장하는, 이른바 커뮤니티 창업(community start-up)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의 방향성과 목적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협동조합은 경제적 가치를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한 지배구조(governance) 속에서 풀어내는 그 방식과 방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도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 두 조직 간 개념적 차이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조직의 사례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인 동시에 조합적 지배

구조를 채택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조합적 지배구조를 택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과 같이 현실에선 다양한 형태의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

4. 소셜벤처

본 연구의 대상인 소셜벤처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기업과 개념적으로 같은 조직체이다. 다만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이 제정되면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으로 주요 유형별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러한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으므로, 이러한 규제에 포섭되지 못하거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민간 영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스스로를 소셜벤처(social venture)라 이름붙였고 이러한 명칭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임팩트 투자기관 FGI). 즉, 한국의 법적 규제와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서 탄생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적 기업이 바로 소셜벤처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소셜벤처가 제도권 용어와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참고로, 사회적 경제 관련 인증·지원 방식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제2장에서 다룬다.

5. ESG와 임팩트 투자

최근 들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ESG와 임팩트 투자는 어떤 관계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 가치 창출(CSV)과 같은 경영 전략의 변화 흐름처럼, ESG는 기관 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를 중심으로 등장한 담론이다. 즉,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를 자세히 검토하여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자 투자 전략의 변화로 볼 수 있다.

ESG 투자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별한다면, 임팩트 투자는 소셜벤처와 같이 핵심 전략과 가치 사슬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의도 및 의지가 반영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ESG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제3절 연구 질문

이러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대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소셜벤처 제도화, 평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공급에 해당하는 임팩트 투자기관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수요에 해당하는 임팩트벤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와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실태와 현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은 무엇인가?

제4절 연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1. 연구 방법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대상, 연구 질문을 바탕

으로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자료 조사(archival research)를 통해 소셜벤처 관련 정책 체계를 살펴본다. 이러한 자료 조사는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책을 한데 모아 소셜벤처 생태계 형성과 발전 지원 관점에서 그 명암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초점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설문조사(survey)를 통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 전반을 살펴본다. 설문조사는 실태와 현황을 조감도처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점집단 면담은 통계와 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FGI의 경우 한국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을 총망라하여 진행하였으며, 기관별 공개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와 구조화된(structured) 질문지를 바탕으로 임팩트 투자기관 및 소셜벤처의 대표 혹은 관계자를 집중적으로 면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을 추려내어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보고서의 구성

〈표 1-1〉 보고서의 구성

연구 구성	주요 내용	연구 방법
1장 서론 ↓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대상 연구 질문 연구 방법과 보고서 구성	
2장 본론 1 ↓	소셜벤처 정책체계	자료 조사
3장 본론 2 ↓	임팩트 투자 생태계	설문조사 면접조사
4장 결론	종합 검토 정책 제언	

자료: 저자 작성.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 이어 본론을 여는 제2장에서는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에 대해 조망한다.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관련 법적·제도적 정의와 포섭 방식,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에 대해 두루 살펴보면서 한국 소셜벤처 관련 정책의 명암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한국 임팩트 투자 민간 생태계 공급과 수요 측면을 분석한다. 임팩트 투자 공급자에 해당하는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 설문 조사와 초점집단 면담(FGI) 결과를 바탕으로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실태와 현황, 발전 방향에 대해 두루 살펴보면서, 아울러 수요자에 해당하는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팩트벤처 기업들의 임팩트 투자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임팩트 투자 민간 생태계 전반을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한국 소셜벤처 관련 정책(제2장), 임팩트 투자 민간 생태계(제3장) 조망과 분석을 종합 검토하고, 향후 임팩트 투자 관련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제 2 장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

제1절 소셜벤처의 제도화

앞서 제1장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에서 정한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 주요 유형 분류에 포섭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이 스스로 소셜벤처(social venture)라 이름을 붙이고 활발히 활동하면서 해당 명칭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임팩트 투자기관 FGI). 그 후 정부에서 소셜벤처를 관련 법령 속으로 정식 편입시키고 지원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소셜벤처는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그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소셜벤처 명명(naming)과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포섭

정부는 소셜벤처기업을 통한 혁신적 포용 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꾸준히 소셜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소셜벤처 기업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정부 지원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상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 등의 지원 근거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¹⁾

벤처기업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소셜벤처기업과 관련하여 <표 2-1>과 같은 법적 정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기업 인증제의 테두리에 포섭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자생적 ‘소셜벤처’를 법적 테두리(boundary)

<표 2-1> 소셜벤처 기업 관련 주요 법 규정

	내 용
소셜벤처기업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법 제2조 제10항)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 사회성, 혁신성장성(법 제16조의8 제1항)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것(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소셜벤처기업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1) 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 기술·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자생적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정부 지원 정책 수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셜벤처기업 창업과 고용자 숫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체의 매출은 정체되는 등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성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개정 이유([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04호, 2021. 4. 20., 일부개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한국 정부의 방식과 태도는 ‘이름 붙이기’와 ‘정책 대상 확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섭되지 못한 자발적인 조직 형태와 유형에 이름을 붙여주고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2. 소셜벤처 판별기준 도입과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부터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성과 벤처기업으로서의 혁신성장성을 기준으로 판별한다(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 아울러 소셜벤처기업을 판별·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 구축한 종합정보망(소셜벤처스퀘어)을 통해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한다(「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제5호).

〈표 2-2〉 소셜벤처 판별기준 : 사회성과 혁신성장성(2021년 기준)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²⁾ 되어 있고, 추진 ³⁾ 중인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증빙 ⁴⁾ 은 50%만 인정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50점	

2)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3)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 없

〈표 2-2〉의 계속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			점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⁵⁾ 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70점	

이 점수 부여).

- 4)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 5)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

〈표 2-2〉의 계속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사업의 성장성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 ⁶⁾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0점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 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⁷⁾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 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 5점 추가 (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⁸⁾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 ⁹⁾ 으로 확인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 6) “혁신성장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 7) 창업기획사(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표 2-2〉의 계속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관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			점	

자료: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1. 7. 2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1-48호, 2021. 7. 20., 제정].

2021년 7월 21일 개정되어 시행된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표 2-2>와 같으며, 기업의 사회성·혁신성을 평가한다.

○ <소셜벤처 판별기준> 주요 개정 사항(1차 기준과 비교)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기존에는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나, 벤처기업법 제정 이후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표2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다.

2021. 7. 21. 시행된 2차 <판별기준>은 <표 2-3>과 같이 사회성·혁신성 측면에서 1차와 다르게 요건 완화, 합리성 제고 등을 도모하였다.

-
- 8) 연구개발비=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손익계산서상 경장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제조원가명세서상 경장연구개발비
- 9)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표 2-3〉 소셜벤처 판별기준 주요 변경 내용

분야	현행	개선(안)	비고
사회성	- 소셜임팩트분야 50백만 원 이상 투자	- 금액한도 폐지	- 임팩트 투자를 받은 경우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사회성 인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17개)	- 객관적인 기준 설정
	-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 수상한 기업	- 창업후 3년 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경력 포함	- 초기창업기업에 인정 범위 확대
	- 사회적가치 추구, 성과측정,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	- 기존 정관 규정사항 이외에도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 구성·실현 항목을 추가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확대
혁신성장성	- 소셜임팩트분야 50백만 원 이상 투자	-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으로부터 50백만 원 이상 투자	- 민간 자본시장 등에 의한 자본 투자에 대한 혁신성장성 인정
	-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본계정에서 30백만 원 이상 투자		- 임팩트분야 본계정 제한 삭제 • 투자금액별 구분점수 도입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 평가 등급 'B' 등급 이상	- 기술평가기관(TCB) 'TA' 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 평가 등급 'BBB' 등급 이상	- 민간 기술평가기관으로 인정 범위 확대 • 등급별 구분점수 도입
	- 법령에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현재 입주 또는 보육 서비스	- 법령 외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또는 보육 서비스	- 법령 외 다양한 공공, 민간 창업지원플랫폼 입주기업으로 확대
	- 한국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포함	-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인정 요건을 완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보도자료(2021. 7. 21.): 「‘사회정의벤처’ 지원 본격 시행, 판별기준 정비 등 지원 박차」.

- 사회성 판별표 2 항목에서는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 사회성 판별표 11 항목에서는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에서의 근무 경력에 대하여 5년(2018년 기준)에서 2년(2021년 기준)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 혁신성장성 판별표 3 항목에서 B등급 50점 인정에서(2018년 기준) BBB등급 70점 인정/B등급 50점 인정(2021년 기준) 체계를 마련하였다.
- 혁신성장성 판별표 4 항목에서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 중 지방기업에 대하여 15%(2018년 기준)에서 10%(2021년 기준)로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 혁신성장성 판별표 7 항목에서는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 기준을 50백만 원(2018년 기준)에서 30백만 원(2021년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 혁신성장성 판별표 11 항목에서는 국내외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 2018년에는 국내의 경우 20점 배점, 국외의 경우 40점 배점에서 2021년에는 국내외 통산 30점 배점으로 판별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3.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도입

벤처기업법은 소셜벤처의 판별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소셜벤처 평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서 마련한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안내서”에서 소셜벤처 평가에 대한 가치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소셜벤처 판별 기준이 일반 기업과 소셜벤처를 구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면, 가치평가모형은 소셜벤처의 잠재적 사회성·혁신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즉, 점수 매기기(scoring) 과정을 통해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2-4>와 같이

점수를 통해 등급을 나누고 이를 통해 소셜벤처 차등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치평가모형은 사회성 평점과 혁신성장성 평점에 가중치 적용 후 합산하여 최종평점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사회성 50%, 혁신성장성 50%).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평가지표의 주요 항목은 <표 2-5>와 같다.

<표 2-4>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등급

점수	등급	등급 정의
90점 초과	S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매우 우수함
80~90점 이하	A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우수함
70~80점 이하	B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양호함
60~70점 이하	C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보통임
50~60점 이하	D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미흡함
50점 미만	F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매우 미흡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26).

<표 2-5>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의 주요 내용

사회성	
대항목	중항목
1. 사회적가치 지향성 및 미션	- 경영주 사회적가치 지향성 - 기업의 사회적 미션
2.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 및 실행체계	-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 -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실행체계
3. 사회적 성과	- 사회적 성과 창출의 효과성 - 사회적성과 창출의 우수성
혁신성장성(제조업)	
대항목	중항목
1. 경영주 혁신역량	-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 수준 - 경영능력
2. 기술의 혁신성	- 기술개발 역량 - 기술의 우위성
3. 성장성	- 시장환경 및 제품의 경쟁력 - 사업추진의 타당성

〈표 2-5〉의 계속

혁신성장성(서비스업)	
대항목	중항목
1. 경영주 혁신역량	- 혁신역량 및 전문성 - 경영능력
2. 서비스 혁신성	- 서비스 개발역량 - 서비스의 혁신성
3. 성장성	- 시장환경 및 서비스 경쟁력 - 사업추진의 타당성

자료: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

<표 2-6>부터 <표 2-8>에 나와 있듯이,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은 항목별 점수를 배분하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통해 채점하여 소셜벤처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후술할 중기부·기술보증기금 지

〈표 2-6〉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중 사회성 평가 항목

대항목	목적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배점
사회적 가치 지향성 및 미션	사회적가치 추구하고 관련된 기업가정신, 설정된 미션 평 가(Social Entrepreneurship and Mission)	경영주 사회적 가치 지향성	S01. 사회적 기업가 정신 수준	14점
		기업의 사회적 미션	S02. 사회적가치 창출 경험 수준	6점
			S03. 사회적 미션의 구체성과 차별성	10점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및 실행체계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과정 즉, 보유하고 있는 내·외부의 역량과 자원 그 리고 실행체계 평가 (Resource and Activities)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S04. 사회적 미션과 사업 활동의 연계성	12점
			S05.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8점
			S06. 외부자원 동원 역량과 파트너십 구축정도	6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실행체계	S07. 소셜비즈니스모델의 우위성	8점
			S08. 소셜비즈니스모델의 확산성	8점
			S09.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운영 수준	8점
			사회적 성과	실제 창출된(창출 가능한) 사 회적 성과 평가(Social Impact)
사회적 성과 창출의 효율성	S11. 사회적 성과 창출의 효율성	6점		
사회적 성과 창출의 우수성	S12. 사회적 성과 창출의 지속성	6점		
합계				100점

주: S(Sociality)는 사회성 평가항목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27).

〈표 2-7〉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중 혁신성장성 평가 항목(제조업)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배점
경영주 혁신역량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 수준	IM01. 경영주 기술지식 수준	6점
		IM02. 경영주 동업종 경험 수준	8점
	경영능력	IM03. 혁신적 기업가정신 IM04. 경영관리 능력	8점 6점
기술의 혁신성	기술개발 역량	IM05. 기술개발 전담인력 현황	8점
		IM06. 기술개발 실적	6점
	기술의 우위성	IM07. 기술의 완성도(TRL) IM08. 기술의 차별성	6점 8점
성장성	시장환경 및 제품 경쟁력	IM09. 시장의 성장성 및 전망	10점
		IM10. 제품의 비교우위성	12점
	사업추진의 타당성	IM11. 사업계획의 타당성 IM12. 사업인프라 확보 수준	12점 10점
합 계			100점

주: IM(Innovation and growth for Manufacturing industry)은 제조업분야 혁신성장성 평가항목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28).

〈표 2-8〉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중 혁신성장성 평가 항목(서비스업)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배점
경영주 혁신역량	혁신역량 및 전문성	IS01. 혁신적 기업가정신	8점
		IS02. 경영주 동업종 경험 수준	8점
	경영능력	IS03. 경영관리 능력	6점
서비스 혁신성	서비스 개발역량	IS04. 혁신문화	8점
		IS05. 서비스개발 전담인력 현황	6점
		IS06. 서비스개발 실적	6점
	서비스의 혁신성	IS07. 서비스의 완성도	6점
IS08. 서비스의 유용성		8점	
성장성	시장환경 및 서비스 경쟁력	IS09. 시장의 성장성 및 전망	10점
		IS10. 서비스의 비교우위성	12점
	사업추진의 타당성	IS11. 시장확보 가능성	10점
		IS12. 사업계획의 타당성	12점
합 계			100점

주: IS(Innovation and growth for Service industry)는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성 평가항목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28).

원 사업 등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여러 지원 정책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4. 사회적 가치 측정의 제도화

가. 사회적 가치 지표(SVI)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의 제도화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이바지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의 실현’을 의미한다(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 사회적 가치 관련 법 발의 현황

○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표 2-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연혁

의안번호	발의자	제안일자	심사진행상태
2001624	김경수 의원 등 51인	2016. 08. 17.	임기만료폐기
2009920	박광온 의원 등 21인	2017. 10. 26.	임기만료폐기
2100001	박광온 의원 등 16인	2020. 06. 01.	소관위심사
2103712	홍익표 의원 등 12인	2020. 09. 10.	소관위심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20년 발의된 동일 명칭 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이 법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¹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체평가 등을 실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 사회적 가치 지표의 개발(2017년)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업의 보완 및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의 유도를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2017년 8월 발표하였다.

□ 사회적 가치 지표 활용 매뉴얼(2021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 지표 활용 매뉴얼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사회적 가치 지표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 사회적 가치 지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수준을 측정하고 개별기업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 제고 및 우수기업과 외부 공공·민간기관과의 사업연계를 지원, 다양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지원사업 및 기업선정 시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로 직접 활용 또는 심사 참고자료로 간접 활용되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적 가치 지표 적용 대상 및 내용

- 사회적 가치 지표의 적용 대상은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

1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등 51인), 의안번호 2001624, 제안일자 2016. 8. 17.자(임기만료폐기))

제 기업이다.

- 사회적 가치 지표의 관점과 측정내용은 크게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 ‘사회적 성과’ 관점은 조직 목표, 사업 활동,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목표의 관리,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 목적 재투자,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등을 평가한다.
 - ‘경제적 성과’ 관점은 기업의 종합적인 재정성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을 평가한다.
 - ‘혁신 성과’ 관점은 기업의 혁신 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다.
- 이러한 사회적 가치 지표(SVI)는 앞서 언급한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

1. 소셜벤처 창업 지원

〈표 2-10〉 창업(희망)자 대상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사업대상자	주관기관
소셜벤처 경연대회	청소년, 대학생, 일반, 글로벌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디딤돌 창업기업과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자료: 저자 작성.

11)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사회적 가치 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 소셜벤처 경연대회(2021)¹²⁾

-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한다.
- 사업지원 대상자: 4개 부문(청소년, 대학생, 일반, 글로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 또는 팀(단체)으로 참가 가능하다.
 - ① (청소년) 만 13세~만 19세 청소년(대학생 제외)
 - ② (대학생) 국내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③ (일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진 만 19세 이상 개인(팀) 또는 소셜벤처(기업)
 - ④ (글로벌) 국제개발협력 관련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 전략 및 아이디어를 가진 만 19세 이상 개인(팀) 또는 소셜벤처(기업)
- 입상자 특전으로 (일반·글로벌 부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권 부여, (대학생 부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서류심사 면제, (KOTRA 후원사상) 「소셜벤처 글로벌 점프 300」 참가권 부여, (KOICA 후원사상) KOICA 해외탐방 지원, (삼성카드 후원사상) 상품개발 및 판로 지원 등이 있다.

○ 디딤돌 창업기업과제(2021)¹³⁾

- 관련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한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지원 대상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 세부과제별 유형은 <표 2-11>과 같다.

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180호,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95호,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 공고(디딤돌·전략형 과제).

〈표 2-11〉 디딤돌 창업기업과제 세부 유형

내역 사업	세부과제		지원대상
디딤돌	첫걸음	자유공모	창업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첫 수행 기업
		창경센터 추천	16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 별도 공고를 통해 각 센터로 접수 및 선정평가 예정 * 제주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접수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기업 R&D지원 분야로 지정된 사회문제해결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기관추천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연계유형별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전략형	디지털혁신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디지털뉴딜 9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성장동력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중소기업 유망 기술 9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BIG3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동차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백신 원부자재		백신 원부자재 관련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그린뉴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그린뉴딜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연계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선정되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95호.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세부사업지침

포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예비창업패키지(2021)¹⁴⁾

- 관련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다.
- 사업 목적: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사업지원 대상자: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021. 3. 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사업지원 내용: 소셜벤처는 특화분야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관기관은 벤처기업협회, 지원규모는 100명으로 설정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의 경우,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51백만 원(최대 1억 원 한도) 지원하고, 그 밖에 창업교육과 전담멘토제도 등을 운영한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2021)¹⁵⁾

-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 사업목적: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안정적인 입주공간 제공,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역량강화 및 지속성장 도모
- 사업지원 대상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

1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8호,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특화 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010호, 2021년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사업' 창업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한다.

〈표 2-12〉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세부내용	배점
소셜미션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가능성 - 창출 가능한 사회적가치(사회적 임팩트)	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적절성·혁신성) - 사업모델의 수익성(시장성) -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 효과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 가능성	40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목표 및 대표자의 의지	30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010호.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창업지원 공간 제공과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성된다.

① 창업지원 공간 제공: 사무공간(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가구 제공) 및 비즈니스공간(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공용 OA장비(복합기 등) 제공

②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교육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추가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지원) 경영·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 멘토링 연계 및 입주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상시 상담 서비스 제공, (협업 지원) 입주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co-working) 및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자원 연계)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진흥원 내·외부 자원 연계 지원

- 선정기준은 신청기업의 소셜미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예비) 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2. 소셜벤처 지원기관 양성

○ 소셜벤처 육성사업(2021)¹⁶⁾

- 관련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다.
- 지원내용: 주요 사업에 대한 운영 사업자 선정,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소셜벤처 육성)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민간 지원조직의 수도권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여 지원
 - (지역 소셜벤처 지원)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 소셜벤처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수도권-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
 - (소셜벤처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공헌(사회적가치) 등의 조사를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자료 확보
 - (소셜벤처 평가시스템 운영) 소셜벤처 여부 판별 및 평가를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지원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셜벤처 정보를 제공
- 사업지원 대상자: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 지원과 컨설팅 등의 역량을 갖추고 모집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5인 이상의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 ② 동 사업으로 구축될 소셜벤처평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IT관련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 ③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상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서울 제외)에 3개 이상의 지사(지점)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 선정기준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별 5점 척도를 적용하며, <표 2-13>과 같다.

1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29호, 소셜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표 2-13〉 소셜벤처 육성사업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배점
1.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 공익적 목표에의 기여가능성	20
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 사업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 사업일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30
3.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 예산의 적절성 - 사업 수행인력의 적절성 -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30
4.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 사업 활용전략의 우수성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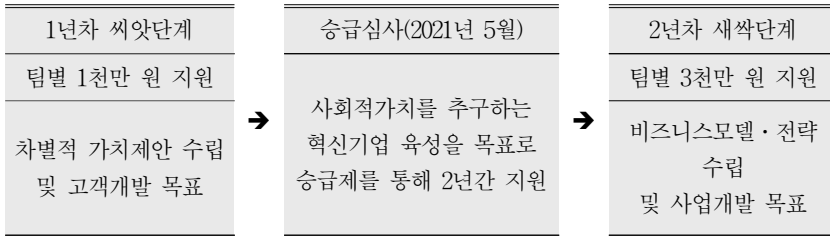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29호.

3. 특수 분야 소셜벤처 창업·성장 지원(도시·주택 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Start-Up(2020)¹⁷⁾
- 관련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최, (재)주거복지재단 따뜻한경제 지원센터 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
 - 사업목적과 내용: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소셜벤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지원 대상자: 예비 창업자(팀) 또는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청년 창업자 및 창업기업(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개인 또는 5인 이하로 구성된 단체 및 기업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창업지원금, 클라우드펀딩, 창업공간, 교육 및 컨설팅, 생태계조성으로 구성된다.
 - (창업지원금) 참여팀에 직접 지원, 최대 2년간 총 4천만 원 단계 별 지원
 - (클라우드펀딩) 참여팀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의 성격에 맞게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펀딩 시기는 동일 하게 적용하여 특정기간 공동 홍보 캠페인 진행(홍보비 및 수수료)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제2020-01호, LH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Start-Up.

〈표 2-14〉 LH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절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제2020-01호.

〈표 2-15〉 LH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Start-Up 심사기준

항목	세부내용	배점
소셜미션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 - 문제상황 인지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및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타진 - 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적절성 및 명확성	20점
사회적기업가 자질	- 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 관련 분야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 효과적인 팀 구성 여부	20점
비즈니스 모델	- 고객과 수혜자 및 그 관계의 파악 정도 - 고객과 수혜자의 ‘문제’ 인식 정도 - ‘문제’의 ‘대안’ 우월성, 차별성의 합리적 제시 -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간 관계의 합리성 및 정합성	15점
창업아이템	- 아이템의 독창성, 차별성, 경쟁력, 혁신성 수준 - 아이템 관련 유사모델 및 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	15점
사업실행 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 창업활동시 예상되는 문제 도출 및 대응방안의 적절성	20점
기대효과	- 소셜벤처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 및 확장성	10점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제2020-01호.

료를 지원금 외 추가지원)

- (창업공간) 요청 시 별도 심사를 거쳐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창업공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참여팀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1:1 솔루션 제공
- (생태계 조성) 상호 성장을 위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 심사기준: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5인) 및 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한다. 심사방법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Scale-Up(2020)¹⁸⁾

- 관련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최, (재)주거복지재단 따뜻한경제 지원센터 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
- 사업목적: 이 사업은 도시재생, 주거복지 분야 혁신적인 신규 공익 프로젝트 창출 및 모델 발굴, 동 분야 소셜벤처의 사업 및 사회적가치 성장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둔다.
- 사업지원 대상자: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법인) 등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성장지원금,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컨설팅, 생태계 조성으로 구성된다.
 - (성장지원금) 사업수행 기업(법인)에 직접 지원: 최대 7천만 원 이내 지원(교부신청 및 심사로 확정된 예산안 기준)
 - (크라우드펀딩) 참여팀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의 성격에 맞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펀딩 시기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정기간 공동 홍보 캠페인 진행(홍보비 및 수수료를 지원금 외 추가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참여팀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 제공
 - (생태계 조성) 상호 성장을 위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 심사기준: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5인) 및 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하여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18)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제2020-02호,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Scale-Up.

〈표 2-16〉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Scale-Up 심사기준

항목	내용	세부내용	배점
사업 효과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되는 해결책의 긍정적인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시급성)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인가? - (수혜자 규모) 프로젝트 수행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수혜자 규모가 큰가? - (프로젝트 효과성/효율성) 기존 대안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가 지속가능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40점
사업 계획	프로젝트가 목표하는 임팩트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시장 분석의 타당성 - 일별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 성과관리 방안의 적절성 - 위험요소 및 극복방안의 타당성 - 예산편성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신규채용 등) - 프로젝트 종료 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수행 역량	프로젝트 제안 기관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현황, 사업 이력과 당 프로젝트와의 상관관계 - 관련분야 사업수행 경험의 적절성 - 내부 및 외부자원(조직·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타당성 	30점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제2020-02호.

4. 소셜벤처를 포함한 일반 벤처 지원(TIPS)

○ 팀스(TIPS/ Pre-TIPS/ Post-TIPS/ TIPS-R) 창업기업(2021)¹⁹⁾

- 관련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주관한다.
- 사업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창업기획자(Accelerator)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에 있다.
- 사업개요: 팀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해 1억~2억 원의 투자 후

1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6호, 2021년 팀스(TIPS/ Pre-TIPS/ Post-TIPS/ TIPS-R)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 원을 매칭 지원한다.

- 사업지원 대상자: 공통, R&D, 연계지원으로 구분한다.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R&D) 틱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 필요),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 (연계지원) 틱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 지원내용: <표 2-17>과 같다.

〈표 2-17〉 2021년 TIPS 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 기간	지원내용				
	엔젤투자금 (틱스운영사)	기술개발(R&D)자금(A+B)		연계지원	
		정부 지원 (A)	민간부담금(B)		추가연계 (지분투자)
		현금	현금	현물	
최대 3년	1억~2억 원 내외 (정부가 지원 하는 기술개발 자금 (A)의 최소 20% 이상)	최대 5억 원	해당 금액	해당 금액	- (창업사업화) 최대 1억 원 차 등지원(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이상) - (해외마케팅) 최대 1억 원 차 등지원(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이상)
		기술개발 자금의 90% 이내	기술개발자금의 10% 이상(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6호.

5. 창업지원 종합 체계(중기부)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의 규모는 31개 사업, 8,120억 원(R&D, 소상공인·여성·장애인 창업 등 제외)으로, 2020년 본예산(7,326억 원) 대비 794억 원(10.8%) 증가하였다.

○ 사업내용은 창업 준비단계, 창업 도약단계, 창업 성장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창업 준비 단계	예비창업패키지 (2021년 예산 1,002억 원)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당 최대 1억 원 한도 지원 -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 예비창업자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청소년비즈쿨 (2021년 예산 62억 원)	- 비즈쿨 운영(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체험활동, 특강 등) - 비즈쿨 캠프(비즈쿨 페스티벌, 전국 단위 기업가정신 체험 프로그램) - 비즈쿨 교육지원(체험형 교재·콘텐츠 개발,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실전창업교육 (2021년 예산 30억 원)	-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 업종별 온라인 창업 실무교육 - 최소 요건제품 제작 및 비즈니스모델 시장 검증 - 투자매칭 플랫폼 등록, BI 입주자격 부여 등 후속 연계지원
창업 초기 단계	초기창업패키지 (2021년 예산 1,002억 원)	- 초기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초기 판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630억 원) -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판로개척, 기술확보 및 보호 등 기업의 성장지원 등 권역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283억 원) - 대학원의 연구성과 및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실험실/연구중심병원 구분)의 사업화 자금 지원(90억 원)
	1인 창조기업 활성화(2021년 예산 62억 원)	- 전국 50개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창조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실태조사·홍보·운영비 등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2021년 예산 173억 원)	- 세무회계(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용료(가입·구입비, 기장대행비 등 모든 항목) - 기술임치(기술자료 임치·갱신 수수료)
	사내벤처 육성 (2021년 예산 200억 원)	- 사내벤처팀(기업)의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지원 및 전담 액셀러레이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1억 원) 지원 - 분사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후속 사업화(최대 2억 원) 지원

〈표 2-18〉의 계속

	사업명	주요 내용
창업 초기 단계	창업성공패키지 (2021년 예산 1,077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및 제품개발 장비 등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창업보육센터 지원(2021년 예산 121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지원) BI 경영평가 결과 및 보육시설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BI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 차등 지원 - (사업비 지원) 개별 BI의 독창적 보육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사업화 및 마케팅 등 프로그램 비용 지원을 통해 특성화 유도
창업 도약 단계	창업도약패키지 (2021년 예산 1,02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및 제품검증 보강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 - 성장촉진: 기업별 맞춤형 지원과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성과창출 중심의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
	메이커 활성화 지원(2021년 예산 34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능에 따라 일반랩, 전문랩으로 구분하여 메이커 교육·창작활동 및 창업·사업화 연계 지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2021년 예산 64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팁스)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 원(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TIPS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해외 마케팅 자금 각각 1년간 최대 1억 원 지원(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 (포스트팁스) TIPS 성공 졸업 창업기업에 후속 사업화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 원 지원(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 (팁스타운) 보육, 네트워킹 등 인프라 공간 지원 및 후속 투자, 교육, 상담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 운영
	창업존 운영 (2021년 예산 61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제공, 멘토링·교육, 투자, 연구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3D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 통·번역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2021년 예산 7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베트남 진출을 위한 피칭 교육, 현지 시장·기술 트렌드 정보, 전문가 멘토링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제공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2021년 예산 8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맞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3천만 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표 2-18〉의 계속

	사업명	주요 내용
창업 도약 단계	도전! K-스타트업 (2021년 예산 21억 원)	- 상금·상장: 총 상금 15.3억 원(최대 3억 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 후속지원: 창업지원사업, 금융지원, 판로지원 등
창업 성장 단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2021년 예산 1,050억 원, 신설)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300억 원)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300억 원) - 소부장 스타트업 100 육성(50억 원) - BIG3분야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지원(40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2021년 예산 46억 원)	- BIG3 주관기관이 전문분야별 멘토 Pool을 구성하여 지원 기업에게 제공하고 희망멘토를 매칭하여 맞춤형 멘토링 제공
	K-스타트업 센터(2021년 예산 144억 원)	- 현지 진출 가능성 검증→사업 실행 및 확장을 위한 기업 맞춤형 온·오프라인 융합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전·후로 입주공간, 사업화자금(60백만 원), KSC 파트너사 등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 추가지원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 컴업 2021, 인공지능 챔피언십,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자료: 2021 중소기업벤처부 공고 제2021-37호.

6. 종 합

소셜벤처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 패키지를 살펴보면, 크게 (1) 창업지원, (2) 초기 지원, (3) 지원기관 양성, (4) 소셜벤처를 포함한 일반 벤처 지원(TIPS), (5) 창업지원 종합 체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주요 활성화 정책으로 소셜벤처 IR 클럽 운영(소셜벤처 판별 기업 대상), 수도권·지방 중간 지원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다(소셜벤처 스쿼어, 2021 소셜벤처 지원 사업 참고).

제3절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

앞서 살펴본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활성화 정책에 이어,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소관) 인증제에 기반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본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3월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 관련 논의 및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해 2021년 12월 현재까지는 인증제로 현행 유지되고 있다.

1. 사회적기업법과 서울시 육성 정책

□ 사회적기업법의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의 제정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 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다.²⁰⁾ 그중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되었다.²¹⁾
- 이 법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 이 법의 주요골자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

2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21)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개정이유[시행 2007. 7. 1.] [법률 제8217호, 2007. 1. 3., 제정]).

기업의 인증,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연계기업 등이다.

- 법 제정 이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자활 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이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또한 소셜벤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통해 새롭게 창 의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²²⁾

○ 사회적기업의 인증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
- 사회적기업의 인증대상자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이다(시행령 제8조).
-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불인증 대상은 개인사업자,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 있는 법인이다.²³⁾

〈표 2-19〉 사회적기업의 인증대상자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자료: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2)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3)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구성된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의미한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²⁴⁾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비교는 <표 2-20>과 같다.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된다.

〈표 2-20〉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규칙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24)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표 2-20〉의 계속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요건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표 2-2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 원 이내 표준형: 3백만~10백만 원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등 847개소(20년) 	-	○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별보증 등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표 2-21〉의 계속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세제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2022. 12. 31.까지)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2021. 12. 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183,590원) - 지원인력: 최대 50명 - 지원기간: 최대 지원기간 4년 		
재정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경영, 회계, 마케팅, 법률, 정보통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 지원인력: 사회적기업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 지원내용: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250만 원 한도 인건비 일부 지원(일정부분 기업 자부담)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인력: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 차등 적용 · 2019년 이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 적용 없음 <p>[2019년 이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기준]</p> <p>▶ 일반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40%(계속고용시+20%) <p>▶ 취약계층 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70% · 사회적기업: 1~3년차 60%(계속고용시+20%) 	○	○

〈표 2-21〉의 계속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사회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회적기업 :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법인) : 5천만 원 이내 · 공동상표 · 브랜드사업 : 3억 원 이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 · 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 -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최대 2년 - 자부담 비율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	○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에서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에 투자, 250억 원 규모 	○	○

자료 :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²⁵⁾

-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패러다임을 전환, 2019년 사회적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이를 실행하고 있다.
-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크게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역할,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기업의 의미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25)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기업 및 조직을 의미한다.²⁶⁾

- 사회적기업의 역할: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으로 보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혁신형 사업비, 사회보험료, 우수기업 지원 등의 재정지원과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세제지원, 투융자 지원 등의 일반지원이 있다.

2.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

□ 2021년 기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의 대상기관·사업은 32개 기관, 194개 사업(광역지자체 사업 추가)이다. 이 중 중앙부처의 경우 15개 부처·90개 사업, 광역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104개 사업이다. 예산규모는 1조 5,17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662억 원(4.6%) 증가하였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화(94개), 시설·보육(46개), 멘토링·컨설팅(19개), 창업교육(15개), 행사·네트워크(14개), R&D(6개) 순이다. 신청대상은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창업자 등으로 구분한다.

○ 유형별 현황

① 지원기관별 현황

- 중앙부처 15개에서 시행하는 사업수는 90개(전체대비 46.4%), 예산규모는 1조 4,368억 원(전체대비 94.7%)이다.
 - 중기부가 1조 2,330억 원(8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문체부(3.2%), 과기부(3.0%) 순이다.

26) 예비사회적기업: 서울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7가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

〈표 2-22〉 20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

(단위: 억 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 관	예산	비율	기 관	예산	비율
중소벤처기업부	12,330.1	81.23	서울시	237.0	1.56
문화체육관광부	491.6	3.24	경기도	206.4	1.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7.7	3.02	대전시	77.6	0.51
고용노동부	298.5	1.97	부산시	52.2	0.34
농림축산식품부	161.9	1.06	충청남도	50.4	0.33
특허청	153.2	1.01	울산시	42.0	0.28
농촌진흥청	122.0	0.80	경상북도	38.1	0.25
환경부	120.0	0.79	강원도	24.4	0.16
보건복지부	78.0	0.51	전라북도	22.6	0.15
해양수산부	70.6	0.46	대구시	17.5	0.12
교육부	58.1	0.38	경상남도	9.2	0.06
기획재정부	16.3	0.11	세종시	7.4	0.05
법무부	8.4	0.06	인천시	7.3	0.05
기상청	1.6	0.01	제주도	6.8	0.04
국토교통부	0.7	0.01	전라남도	4.8	0.03
소계 (15개 부처, 90개 사업)	1조 4,368억 원 (94.7%)	광주시	4.0	0.03	
		충청북도	3.0	0.02	
		소계 (17개 시도, 104개 사업)	811억 원 (5.3%)		
32개 기관, 194개 사업, 1조 5,179억 원					

주: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창업지원 예산 규모 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호.

- 지자체 17개에서 시행하는 사업수는 104개(전체대비 53.6%), 예산 규모는 811억 원(전체대비 5.3%)이다.
- 서울시가 237억 원(1.6%)으로 지자체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도 206억 원(1.4%), 대전시 77.6억 원(0.5%) 순이다.

② 지원유형별 현황

- 예산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화(8,745억 원, 57.6%), R&D

(4,207억 원, 27.7%), 시설·보육(1,080억 원, 7.1%), 창업교육(828억 원, 5.5%) 순이다.

○ 사업유형별 사업개수는 사업화 94건, R&D 6건, 창업교육 15건, 시설·공간·보육 46건, 멘토링·컨설팅 19건, 행사·네트워크 14건으로 사업개수 및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⁷⁾

제4절 소 결

1. 소셜벤처 정책체계의 명암 : 개발국가형 통제와 개입

본 장에서는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 기업까지 포괄하여 자료 조사(archival research)를 통해 소셜벤처 정책체계를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소셜벤처의 명명(naming)과 벤처기업법 포섭, 소셜벤처 판별기준 도입과 개정,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도입,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의 제도화(SVI)를 다루었다. 제2절에서는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 지원, 초기 지원, 지원기관 양성, 소셜벤처를 포함한 일반 벤처 지원(TIPS), 창업 지원 종합 체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기업법과 서울시 육성 정책,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의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강한 국가(strong state),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통제(control)와 개입(intervention)이다. 개발국가 이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기 시절 강력한 관료제의 개입과 통제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성장·발전을 이끈 원동력을 제공한 국가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담론이다(Amsden, 1992; Evans, 1995). 소셜벤처 정책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해 보면, 이

27) 2021년 창업지원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호] 참고.

러한 개발국가 모형이 여전히 소셜벤처와 같은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에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셜벤처를 명명(naming)하고 판별하며 분류(categorizing)하고 체계화하여 정책 대상(target)으로 편입시키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개발국가 정책 집행 방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은 진보적인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럿 존재한다.

소셜벤처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아래에서부터 위로(bottom-up)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조차 위에서 아래로(top-down)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분류하며 이에 여러 공적 지원(public support)이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소셜벤처 정책체계에서 행정 부처의 역할 분산이 두드러진다.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조직별 소관 부처가 다르고 법인격에 대한 인정·인증 절차와 관련 지원이 얹혀 있어 사업과 사회혁신의 관점이 아니라 법·제도의 관점에서 촛촛하게 설계된 그물망에 포섭되어야 비로소 공공 영역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제도화·지원 방식은 소셜벤처가 싹을 틔우는 데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핵심이자 바탕인 사회적 상상력을 제약하고 틀에 가두어 질식시킬 위험이 크며 그 자체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셜벤처 평가체계를 보면 제조업(M) 사회성·혁신성과 서비스업(S) 사회성·혁신성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데, 다학제·다분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업모델의 경우 여러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이분법적 평가체계에서는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되어 있다. 아울러 설립·성장 유인(incentive) 형성에 개입하여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맞는 조직 형태와 구조 선택이 아니라, 창업 이후 생존까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불리는 초기 난관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공공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 조직 유형과 구조를 선택하게 만드는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면, 하버마스의 식민화(colonization) 개념과 베버의 철창(iron cage) 개념을 빌려 설명할 수 있다. 하버마스가 말한 대로 경제 체계(시장), 행정 체계(국가)와 같은 시스템(system)이 사적·공적 영역의 생활 세계(lifeworld)를 점차 체계적으로 포섭하여 식민화하는 것, 베버가 말한 대로 합리화(rationalization)에 기초한 관료제가 철창이 되어 인간을 제약하는 것, 이 모두 개발국가 정책체계에 대한 묘사가 될 수 있다. 생활세계에서 창발된(emerging)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행정 체계의 명명·판별·지원에 포섭되어야만 생존에 유리한 것,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소셜벤처의 혁신성·사회성이 제조업·서비스업 영역으로 협소하게 나뉘어 비교될 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모두 생활세계 식민화와 합리적 관료주의 철창의 실증적 사례이다.

물론 개별기업으로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생존하면서 성장의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례도 여럿 존재하겠지만,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체계의 탄생과 형성은 그 자체로 여러 위험을 안고 있으며, 특히 행정 부처의 역할 분산에 따른 조직 법인격 간 정책지원 차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왜곡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개발국가형 정책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은 제4장 제2절에서 다룬다.

제 3 장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

제1절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 개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에서 말하는 ‘임팩트(impact)’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증가 혹은 부정적인 사회 변화의 감소, 즉 긍정적인 변화의 순증가(net increase)를 의미한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성과, 즉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투자를 의미한다.

2009년 록펠러재단과 JP모건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현재 약 50개국, 360개 이상의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IIN)에서는 임팩트 투자를 재무적 수익과 함께 긍정적이며 측정가능한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하는 투자로 정의한다.²⁸⁾

GIIN에 따르면 임팩트 투자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또는 기회에 투자하는 의도성(intentionality)을 가지며, 시장 수익률 이하에서부터 시장 수익률 수준까지 다양한 투자 수익률 범위 내에서 재무적 수익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임팩트 투자자는 집행 중이거나 집행된 투자(underlying investment)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의 측정과 보고에 대한 의지(commitment)를 가진다는 점 역시 임팩트 투자의 중요한 특징 중

28) <https://thegiin.org/>(접속일: 2021. 10. 1).

〈표 3-1〉 임팩트 투자의 개념적 정의

	정 의
임팩트 투자	임팩트 투자는 측정 가능하고 유익한 사회·환경적 임팩트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고자 하는 펀드나 회사, 조직에의 투자를 의미함(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를 가진 회사, 조직, 펀드들에 의해 행해지는 투자를 의미함(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²⁹⁾
	임팩트 투자는 재정적 수익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수익의 재무적 가치를 고려하여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한동숙, 2019)
	임팩트 투자는 사회문제 해결 목적의 사회적기업 등(Social Enterprises)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의미함(Höchstädter & Scheck, 2015)

자료: 인용된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하나이다.

이처럼 임팩트 투자는 일회성 기부나 자선(philanthropy)과는 구분된 비즈니스 관점의 투자라는 점에서 투자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재무적, 사회적 성과를 창출했는지를 측정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다(김단비 외, 2019), 따라서 임팩트 투자에 있어 임팩트의 측정 및 관리는 재무적 가치의 측정 및 관리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1. 임팩트 투자의 개념

임팩트 투자는 최근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등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개념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임팩트 투자는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주주 및 주요 고객 이외에도 지역사회, 환경, 취약계층 등 비즈니스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29) <https://www.rockpa.org/guide/impact-investing-introduction/>(접속일: 2021. 10. 1).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투자’, ‘ESG투자’, ‘윤리적투자’, ‘사회책임투자’ 등 재무적 가치 외에도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투자방식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ing)란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무적 수익과 함께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의 비재무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한다(Pastor, Stambaugh, & Taylor, 2021). US SIF(The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에 따르면 지속가능투자에는 윤리적 투자(Ethical Investing),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ESG 투자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존재하며, 임팩트 투자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투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³⁰⁾

윤리적 투자란 (재무적 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윤리적 투자를 기피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기반 투자를 의미한다. 술, 담배, 도박, 석탄발전, 동물실험 관련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기피대상이다.³¹⁾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 투자와 사회책임투자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가 좀 더 오래된 개념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반면, 후자는 투자에 대한 윤리성을 일일이 따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마치 윤리적 투자가 아니면 비윤리적 투자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책임의식을 좀 더 강조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Sparkes & Cowton, 2004).

ESG 투자란 투자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통합시키는 투자 접근방식을 의미한다(The Bridgespan Group).³²⁾ 즉 ESG 기회 및 리스크 중에 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material impacts)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다(S&P Global).³³⁾ ESG 투자는 윤리적 투자 또는 사회책임투자보다는 좀 더 느

30) <https://www.ussif.org/about>(접속일 : 2021. 10. 1).

31) <https://www.hsbc.co.uk/wealth/articles/what-is-sustainable-investing/>(접속일 : 2021. 10. 1).

32) <https://www.bridgespan.org/insights/library/impact-investing/>(접속일 : 2021. 10. 1).

슨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석탄발전회사 또는 석유회사라 하더라도 그들이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등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을 보이고 있다면 ESG 투자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HSBC UK).³⁴⁾

반면 임팩트 투자는 세상에 긍정적 영향(positive impact)을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미치고 있는 회사 또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회사 또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HSBC UK).³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임팩트 투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혁신적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재무성과도 어느 정도 이상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ESG 투자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비재무적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더 나은 투자성과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결국은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투자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념상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등장과 형성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GIIN)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글로벌 임팩트 투자 시장의 추정 규모는 약 7,150억 달러로, 미국 주요 기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동참 선언, 일반 대중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인식 증대 등의 변화와 함께 향후 임팩트 투자 시장의 성장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³⁶⁾ ESG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Bloomberg에 따르면 ESG 자산 규모는 2016년 약 22.8조 달러에서 2020

33) <https://www.spglobal.com/en/research-insights/articles/what-is-the-difference-between-esg-investing-and-socially-responsible-investing>(접속일 : 2021. 10. 1).

34) <https://www.hsbc.co.uk/wealth/articles/what-is-sustainable-investing/>(접속일 : 2021. 10. 1).

35) <https://www.hsbc.co.uk/wealth/articles/what-is-sustainable-investing/>(접속일 : 2021. 10. 1).

36) <https://thegiin.org/research/publication/impinv-survey-2020>(접속일 : 2021. 10. 1).

년 약 35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50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³⁷⁾

국내의 경우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팩트 투자 활동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ESG 열풍과 더불어 ESG 펀드 및 ESG 채권의 발행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임팩트 투자 및 ESG 투자 현황 및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어려운 상황이나, 2021년 7월 기준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11개 사회투자 펀드(사회적기업 투자·소셜 임팩트 투자 펀드로 구성)의 투자 자금은 약 2,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 기준 국내 ESG 채권의 상장 잔액은 총 82.6조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금융위원회, 2021).

글로벌 임팩트 투자 및 ESG 투자 시장 규모에 비하면 국내 시장의 규모와 발전 속도는 아직 태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닷, 루트에너지, 센트비, 에누마, 테스트웍스, 트리플래닛 등의 테크 기반 소셜벤처의 성공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ESG 경영 패러다임의 도래와 함께 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조되면서 임팩트 투자 및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임팩트 투자는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2020년 기준 1,500여 개 이상의 소셜벤처가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 아동 문맹 퇴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Global Learning XPRIZE)’에서 대상을 수상한 ‘에누마’, 글로벌 사회혁신 스타트업 경진대회 ‘익스트림 테크챌린지(Extreme Tech Challenge, 이하 XTC)’에서 대상을 수상한 ‘닷’과 같은 성공적 소셜벤처의 사례가 확산되면서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37) <https://www.bloomberg.com/company/press/esg-assets-rising-to-50-trillion-will-reshape-140-5-trillion-of-global-aum-by-2025-finds-bloomberg-intelligence/>(접속일: 2021. 10. 1).

이와 더불어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임팩트 투자사,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임팩트지향 조직의 민간협의체인 ‘임팩트얼라이언스’가 2019년 결성되었고, 같은 해에 전 세계 임팩트 투자/소셜벤처 관계자가 함께 모여 임팩트 투자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공유하는 ‘아시아임팩트나이즈’ 임팩트 투자 포럼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등 임팩트 투자와 관련한 국내외 네트워크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임팩트 투자 과정 전반의 특징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임팩트 투자 대상인 소셜벤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임팩트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어떤 노력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를 조사했다.

제2절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 조사

1. 조사 개요

본 연구팀은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 임팩트 투자 주요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의 핵심 전문가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를 수행했다.

가. 조사 방법

본 연구팀은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팩트 투자 규모 및 자금 운용 상황 등의 투자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투자 철학, 임팩트 투자 집행 시 주요 고려사항,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의 비중 및 균

형 유지에 대한 기관의 철학 및 의견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했다.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행이 가능한 온라인 대면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1) 문헌 조사

조사 대상 기관의 임팩트 리포트, 연차 보고서 등의 공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의 임팩트 투자 현황과 투자 추이를 분석했으며, 기관별 주요 포트폴리오사(피투자기업)와 관련한 언론 보도자료 및 사업성과(재무성과 및 사회성과) 관련 문헌을 참고했다.

또한 온라인 심층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전달받은 보고서, 연구자료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의 임팩트 투자 평가/관리 프로세스 및 투자 구조를 분석했다.

2) 심층 인터뷰

2개 부문,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된 인터뷰 질문지를 기반으로 심층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를 함께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 시에는 인터뷰 대상자의 일정 및 상황을 고려하여 심층 인터뷰 또는 서면 인터뷰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되, 일부의 경우 의견 보완 및 상세한 답변 수집을 위해 심층 인터뷰 진행 후 서면 인터뷰를 추가 진행했다.

나. 조사 내용 및 구성

심층 인터뷰 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2개 부문(1부, 2부)으로 구성했으며 기관의 유형(GP/LP 및 중간지원 조직)에 따라 일부 문항을 차별화했다.

1) 일반 질문(1부)

1부의 일반 질문은 하위 문항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공통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질문의 내용은 크게 ① 투자 현황 및 투자 기준, ② 측정/평가 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측정/평가의 방식, ③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했다.

〈표 3-2〉 임팩트 투자기관 심층 인터뷰 일반 질문(1부) 구성

문항 번호	질문 내용
1	귀하의 회사가 현재 임팩트펀드를 운용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다면, 귀사가 추구하는 임팩트펀드의 목표수익률(IRR)은 몇 % 정도입니까?
2	귀사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임팩트벤처(임팩트VC)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2-1	귀사는 임팩트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3	귀사는 임팩트 투자시 포트폴리오의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평가하시나요?
3-1	(자체적인 임팩트 측정/평가 모델이 있을 경우) 자체적인 임팩트 측정/평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외부 기관/용역을 통해 임팩트를 측정/평가하는 경우) 외부 기관/용역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4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1	현재 임팩트 투자 생태계와 관련된 정부정책/지원사업의 장단점, 좋은 사례/나쁜 사례 등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5	향후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 또는 도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6	향후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신지요?
7	향후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또는 정책기관에서 지원하거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자료: 저자 작성.

2) 세부 질문(2부)

2부의 세부 질문은 기관의 유형(GP/LP 및 중간지원조직)에 따라 질문의 내용을 차별화했으며, 하위 문항을 포함하여 총 27~31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질문의 내용은 투자 현황, 투자 프로세스, 투자 기준 및 철학, 임팩트 측정 및 평가 방식, 임팩트 투자기관과의 협업 등 해당 기관의 투자 과정 전반(딜소싱, 투자 집행, 사후관리, 회수 등) 및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구성했다.

〈표 3-3〉 GP 심층 인터뷰 세부 질문(2부) 구성

문항 번호	질문 내용
1	귀사의 임팩트 투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딜소싱부터 회수에 이르기까지 임팩트 투자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세요.
2	귀사가 임팩트 투자 집행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을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3	귀사는 임팩트 투자시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비중을 각각 몇 % 정도 고려하십니까?
3-1	위와 같이 고려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다양한 임팩트 분야 중(예: SDGs 17분야, Toniic Impact Theme Framework 등) 귀사가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5	다양한 임팩트 분야 중(예: SDGs 17분야, Toniic Impact Theme Framework 등) 귀사가 향후 중점적으로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6	귀사가 현재 임팩트펀드를 운용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다면, 귀사가 그동안 만들어낸 재무성과(IRR)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6-1	귀사의 임팩트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재무성과 측면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6-2	귀사의 임팩트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사회성과 측면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7	귀사의 임팩트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그동안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대답해 주세요.
8	귀사는 주로 어떤 시리즈 단계에 집중하여 임팩트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지요? 그동안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대답해 주세요.
9	임팩트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피투자회사의 기대 임팩트를 평가하실 때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평가하시나요?
9-1	임팩트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정성적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정량적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요?
10	임팩트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외의 임팩트 측정/평가 모델을 활용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모델을 사용하시는지요?
10-1	귀사가 활용하시는 임팩트 측정/평가 모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	임팩트 투자 후 피투자기업이 재무성과 및 사회성과를 창출하도록 사후관리 및 지원을 제공하시나요?
11-1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 후 재무성과 및 사회성과 창출을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 및 지원을 제공하시나요?

〈표 3-3〉의 계속

문항 번호	질문 내용
12	임팩트 투자 집행 이후 피투자기업이 본래의 미션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미션 드리프트). 이와 관련한 사후관리 또는 대응계획은?
13	임팩트 투자 집행 이후 귀사가 사용하시는 임팩트 측정 및 평가체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3-1	(피투자기업에 대한 임팩트 측정 및 평가체계가 있을 경우) 귀사의 임팩트 측정 및 평가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4	임팩트 투자 포트폴리오의 임팩트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및 인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14-1	(14번에 ②라고 응답하신 경우 진행) 임팩트 측정/평가를 위한 외주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5	귀사가 임팩트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16	다른 임팩트 VC들과 비교시 귀사가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투자철학, 투자분야 등)
17	임팩트 투자를 진행 중인 일반 VC들과 비교해서 귀사가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18	귀사의 포트폴리오 중에 현재 임팩트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거나, 차기 임팩트 유니콘으로 기대되는 회사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19	귀사는 임팩트 투자 외에도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시나요? 이 경우 어떤 기준/정책을 가지고 투자하시는지요?
20	임팩트 VC의 경우 일반 VC에 비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일반 VC들과 협력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20-1	(일반 VC와 협력할 생각이 있을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협업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을 작성해 주세요.
21	위탁운용사 선정시 LP기관이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2	귀사의 구성원을 선발 또는 영입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시는지요?
23	구성원 입사 후 임팩트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교육 또는 지원을 제공하시나요?
24	임팩트 펀드 운용 규모, 인력 규모(임직원 수, 투자심사역 수 등), 구성원 중 일반 VC/금융권 출신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요?

자료: 저자 작성.

〈표 3-4〉 LP 및 중간지원조직 심층 인터뷰 세부 질문(2부) 구성

문항 번호	질문 내용
1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15번 문항과 동일
2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2번 문항과 동일
3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3번 문항과 동일
3-1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3-1번 문항과 동일
4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4번 문항과 동일
5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5번 문항과 동일
6	귀사가 그동안 얻은 재무성과(IRR)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6-1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6-1번 문항과 동일
6-2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6-2번 문항과 동일
7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7번 문항과 동일
8	GP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의 세부 질문(2부)의 8번 문항과 동일
9	임팩트 투자를 위한 출자사업 진행시 위탁운용사에게 기대하는 점은?
9-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임팩트 투자를 위한 출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운용사 선정시 다음의 요소를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하게 평가하십니까?
	(10-1) 운용사의 포트폴리오(피투자기업, 과거 IRR 실적수준)
	(10-2) 심사/운용역의 경력
	(10-3) 운용사의 투자철학
	(10-4) 출자기관과의 협업
	(10-5)(선택지에 원하시는 답이 없는 경우) 귀사가 임팩트 투자 운용사 선정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1	귀사는 임팩트 투자시 GP가 재무성과와 사회성과 중 어느 쪽에 좀 더 치중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향후 임팩트 펀드의 비중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확대 또는 축소할 것인지요?
1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임팩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GP들이 제대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3-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다른 임팩트 투자 관련 기관들과 비교시 귀사가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투자철학, 투자분야 등)
15	다른 임팩트 투자 관련 기관들과 비교시 귀사가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서 지향하는 역할 내지 포지션은 어떠한 것인가요?
16	귀사의 포트폴리오 중에 현재 임팩트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거나, 차기 임팩트 유니콘으로 기대되는 회사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 대상 임팩트 투자기관 정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팩트 투자기관 중 다음의 10개 기관을 최종 조사 기관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임팩트 얼라이언스(impact alliance),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IIN) 등 국내외 주요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에서도 임팩트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본 연구팀의 요청을 수락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각 기관의 대표자 및 이사진으로 설정했으며, 기관별 투자 철학 및 투자 프로세스,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 대한 소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 10개 기관의 주요 정보는 <표 3-5>와 같다.

<표 3-5> 임팩트 투자기관의 기본 정보

기관명(유형)	업력 (설립연도)	평균/누적 투자금액 (YY.MM 기준)	총 운용금액 (YY.MM 기준)
D3 주빌리파트너스 (GP)	10년 (2011)	N.A	1,000억 원 (인터뷰 결과)
인비저닝파트너스 (GP) ³⁸⁾	5년 (2016)	누적 680억 원 (22.02 기준)	1,650억 원 (22.02 기준)
MYSC (GP/LP)	10년 (2011)	평균 1억 원/ 누적 95억 원 (22.02 기준)	410억 원 (21년 기준)
임팩트스퀘어 (GP)	11년 (2010)	N.A	N.A
크레비스파트너스 (GP)	19년 (2002)	N.A	400억~500억 원 (인터뷰 결과)
아크임팩트자산운용 (GP)	18년 (2003)	N.A	660억 원 (18.12 기준)
IFK 임팩트금융 (GP)	4년 (2017)	N.A	N.A
소풍벤처스 (GP)	13년 (2008)	평균 1~3억 원	155억 원 (22.01 기준)

〈표 3-5〉의 계속

기관명(유형)	업력 (설립연도)	평균/누적 투자금액 (YY.MM 기준)	총 운용금액 (YY.MM 기준)
한국사회투자 (GP)	9년 (2012)	8.9억 원 (18년 기준)	710억 원 (19.04 기준)
아산나눔재단 (LP/GP)	10년 (2011)	N.A	604억 원 (21.12 기준)
평균 업력	10.9년		

자료: 기관별 자료 및 심층면담.

〈표 3-6〉 임팩트 투자기관의 주요 투자 분야

기관명	주요 투자 분야	대표 포트폴리오사
D3 주빌리파트너스	기후위기 대응, 헬스케어, 핀테크	리코, 피플펀드, 테스트웍스
인비저닝파트너스	기후, 웰니스, 교육	에누마, 지구인컴퍼니
MYSC	사회양극화, 경제불평등, 기후위기	유니크굿컴퍼니, 위허들링
임팩트스퀘어	환경	브라더스키피, 넷스파
크레비스파트너스	환경	트리플래닛, 스페이스워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공유경제	그랩
IFK 임팩트금융	균형있는 발전, 도시 재생	블랭크, 바오스앤밥스
소풍벤처스	기후환경, 농식품, 헬스케어, 미디어 콘텐츠	쏘카, 자란다, 팀블랙, 동구밭, 퍼블리, 뉴닉
한국사회투자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청정에너지, 지속가능도시	쏘카, 크레파스
아산나눔재단	청년창업가	D3, 소풍 등을 통해 간접투자

자료: 주요 투자 분야 및 대표 포트폴리오사에 대한 정보는 심층면담 대상 기관에서 발행한 임팩트 리포트 및 주요 투자/VC 유관 전문 사이트상의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 38) 2021년 8월 설립된 인비저닝파트너스는 기존 옐로우독의 투자팀 멤버들이 새롭게 독립하여 출범한 임팩트 투자사로, 옐로우독의 펀드 및 포트폴리오를 계승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조사 결과

가. 임팩트 투자 철학/기준 및 프로세스

1) 운용 철학/투자 특징

가) 운용 철학

(1) 임팩트 투자의 목적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조사한 결과 초기(공동) 설립자 및 대표의 의지, 재단이나 자매 단체 등 주요 주주의 관심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연결하려는 노력에서 임팩트 투자를 시작한 경우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기관별 특색 및 고유한 목적과 비전에 따라 그 이유가 다양했다. 예를 들어 조사참여기관 중 임팩트스퀘어, 크레비스파트너스(이하 ‘크레비스’)는 임팩트의 확산을 위해 임팩트 투자를 하고 있었다. 임팩트스퀘어는 피투자기관이 사회적 가치가 경쟁력이 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팅을 투자의 도구로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의 규모화를 목적으로 임팩트 투자를 한다. 크레비스는 임팩트 투자의 분야, 목적을 강조하기보다는 무모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분야더라도 창업을 통해 비즈니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내보자는 신념으로 임팩트 투자를 시작했다.

소풍벤처스(이하 ‘소풍’)는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이자 임팩트 투자사로, 투자 결정단계에서부터 피투자자들의 소셜임팩트를 정의하고 소셜벤처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과 임팩트를 창출하도록 투자하고 있다(SOPOONG 임팩트 엑셀러레이팅 리포트 2019). MYSC의 경우 비영리 사회복지법인과 일반 금융권 분야의 공동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즉, 자본시장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복지 분야가 너무 구분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적인 접근 외에도 영리적인 자본시장에 기반한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는 공동의식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영리 법인으로 시작한 사례이다. IFK임팩트금융(이하 'IFK')의 경우 민간 단위에서 도매 기금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주요 주주들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기관을 설립했다.

인비저닝파트너스, 아크임팩트자산운용, 한국사회투자, D3주빌리파트너스(이하 'D3') 등은 대표의 의지 및 주요 주주의 의사로 임팩트 투자를 시작했다. 아산나눔재단의 경우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구현, 창업가, 사회혁신가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재단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임팩트 투자를 시작했다.

(2) 임팩트 투자 결정요인

임팩트 투자 집행 시 투자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니스모델의 재무적 타당성 및 사회적 가치의 확장 가능성이 다(D3, 소풍, 인비저닝파트너스, IFK, 임팩트스퀘어, 한국사회투자). 임팩트스퀘어의 경우 비즈니스 포텐셜을 중시하며, 사회적 가치의 스케일업 가능성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한다. 예컨대 해당 비즈니스를 통해 10만 명 이상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임팩트의 잠재적 규모를 판단한다. 소풍의 경우 비즈니스모델의 타당성과 그로 인한 소셜 임팩트의 확장 가능성을 중시한다.

둘째, 창업팀이나 대표의 역량 및 진정성이다(IFK, 임팩트스퀘어, MYSC, 한국사회투자).

투자기관별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도 차이가 드러났다. IFK와 임팩트스퀘어, 크레비스의 경우 엑셀러레이터로서 피투자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크레비스의 경우 D3, MYSC의 설립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는데, 이는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D3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P인 아산나눔재단은 펀드의 출자 취지와 재단의 공익사업과의 연계성, 투자수익률 등을 중요한 요소

로 꼽고 있다.

(3) 임팩트 투자기관별 차별점

또한 임팩트 투자기관별로 각각의 특색이 나타났다. 투자를 집행하는 해당 사회문제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피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는지를 중시하는 경우(인비저닝파트너스, D3, IFK, 소풍) 딜소싱 단계부터 해당 영역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진행한다. 예컨대 인비저닝파트너스는 ‘임팩트 DNA 만들기’, ‘리드 투자’를 강조한다. 임팩트를 강조하기 위하여 해당 라운드에서 큰 금액을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체적인 투자 분위기를 리드하거나, 피투자기관이 임팩트 DNA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투자를 집행한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경우 임팩트 투자 비중이 100%인 임팩트 벤처캐피탈이다.

D3, 소풍, 임팩트스퀘어는 투자 외에도 엑셀러레이팅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집행한다. D3와 소풍은 창업 유경험자로 구성된 파트너들이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으며, 임팩트스퀘어 역시 엑셀러레이팅의 비중이 큰 편이다. D3는 창업 및 회수까지의 사업경험을 갖춘 제너럴파트너 3인 및 투자은행/PE/글로벌 컨설팅 출신 심사역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셜벤처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독립 VC로서 제너럴파트너 3인이 주요 주주 및 경영진으로서 임팩트 투자를 위한 발굴, 심사, 밸류업(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소풍은 파트너 전원이 창업 유경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젠더, 로컬 투자와 같은 관점 투자를 중시한다. 또한 임팩트 리포트 발간을 통해 피투자사들의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으며, 후속투자 연결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IFK의 경우 로컬투자를 중점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딜소싱 단계에서 피투자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투자결정을 진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사회투자는 민간 비영리 기반이므로 투자자(funder) 요구나 이익 창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모법인 및 출자법인이 없어 독립적인 투자철학 유지가 가능하다.

MYSC는 임팩트투자를 하는 벤처를 ‘선행지표’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선행지표’가 필요한 대기업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한다. 이를 통

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필요한 대기업이 직접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며, 컨설팅을 통해 투자한 스타트업과 기업과의 협업을 전략적으로 리드한다. 또한, 특이하게도 GP 역할 외에도 외부의 다른 펀드 5개에 LP로 참여하여 임팩트투자 생태계의 확장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은 민간 기관이어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출자하는 GP들과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4)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는 일반 VC들과의 차별점

임팩트 투자기관은 일반 벤처캐피탈과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점이 발견되었다. 일반 VC(예: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나 스파크랩스)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담긴 테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 VC들에게는 환경 스타트업, 교육 스타트업과 같이 특정 테마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의 역할을 할 뿐이다.

반면 임팩트 투자기관은 구체적으로 타게팅(targeting)하는 사회문제 영역을 가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에 따라 임팩트 투자기관의 경우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여 피투자기업을 성장시키고 임팩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투자 특징

(1) 임팩트 투자 분야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의 투자 현황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향후의 임팩트 투자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7개 목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SDG #3. 건강과 웰빙, SDG #8. 양질의 일자리 순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비저닝파트너스, 소풍, 크레비스, 임팩트스퀘어는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한 임팩트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FK는 로컬분야 투자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아크임팩트자산운용의 경우 빈곤퇴치(SDG #1)를 중점 투자분야로 강조하고 있었다.

〈표 3-7〉 임팩트 투자기관의 현재와 향후 임팩트 투자 분야

기관명	현재 주요 투자분야	향후 투자분야
D3 주빌리파트너스	환경 레하케어(돌봄/헬스케어) 에듀테크/핀테크	기후위기 대응 산업 디지털헬스케어 에듀테크
인비저닝파트너스	에듀테크 웰니스(건강한 삶) 환경 양질의 일자리	기후변화 에너지 Food agriculture Carbon tech
MYSC	양질의 일자리 혁신과 인프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 지속가능생산과 소비 농업, 해양, 수산 개발협력, 로컬기업
임팩트스퀘어	환경	-
크레비스파트너스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과 복지 양질의 일자리	농수산업 식품업 바이오 의료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도시재생 공유경제 바이오 헬스 마이크로 파이낸스	환경 에너지 대체육/지속가능한 소비
IFK 임팩트금융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로컬) 양질의 일자리 농산물 및 지역경제	-
소풍	농식품 헬스케어 지속가능한 환경 로컬 미디어 콘텐츠 Empowerment	-
한국사회투자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양질의 일자리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아산나눔재단	청년 창업가 지원 (SDGs의 17개 목표 전반)	-

자료: 기관별 자료 및 심층면담.

MYSC는 특이하게 국내 임팩트 투자 외에도 국내 지역 기업과 개발도상국의 현지 기업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었다. 베트남에 소재한 2개 스타트업 투자를 완료했으며, 2022년부터는 KOICA의 IBS ESG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아산나눔재단의 경우 재단의 미션을 추구하기 위해 청년 창업가 지원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고 있으며, LP 기관으로서 SDG 17개 분야 모두에 대해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임팩트 투자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향후 임팩트 투자 분야

전반적으로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탄소저감, 기후위기 등 환경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SDG #13. 기후행동과 관련하여 기후기술(climate-tech), 특히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100% 기후 솔루션(climate solution)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했다(2022년 1월 768억 원 규모로 클로징). D3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솔루션, 재생에너지, CO2 절감기술, 폐수처리 기술, 순환경제 등의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소풍은 2022년 3월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육성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100억 원대 민간 펀드 결성을 발표했다. 기후·환경 분야의 석박사급 전공자에게 창업지원금을 주면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컴퍼니빌딩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런칭했다.

임팩트스퀘어는 해양 생태계, 폐기물의 수거와 같은 사업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D3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White Bio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결과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대체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많은 펀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놓고 볼때 아직까지는 세부 분야를 너무 좁히게 될 경우 오히려 피투자기관 선정 폭이 좁아져 펀드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서는 탄소저감 목적의 기계, 부품 제조 관련 투자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나, 소비재 관련 투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이 외에도 SDG #7. 깨끗한 에너지, SDG #8. 양질의 일자리,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등에 대한 투자 기회에 관심을 보였다.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과 관련해서는 인비저닝파트너스와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등이 자원재생 및 대체육 관련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비저닝파트너스, 크레비스, 한국사회투자 등은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관련 농수산업, 농식품업 등을 향후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될 분야로 주목하고 있었다.

한편 D3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디지털헬스케어와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MYSC는 ESG로 인해 촉발된 산업별 혁신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에 주목하여, 가치사슬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넘나드는 투자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3) 임팩트 투자방식

임팩트 투자기관들의 투자 집행 방식은 다양했다. 예컨대 인비저닝파트너스, D3는 80~90%의 투자를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임팩트스퀘어, 한국사회투자 등도 상환전환우선주 방식 비중이 높

〈표 3-8〉 임팩트 투자기관의 투자 집행 방식별 비중

(단위: %)

투자 집행 방식 조사 기관	우선주 (RCPS/CPS)	전환사채 (CB)	보통주 (신주/구주)	기타 - 세이프, CN
인비저닝파트너스	80~90	-	-	10~20
D3	90	5	3	2
IFK	15	15	70~80	
소풍벤처스	30~40		60~70	
임팩트스퀘어	70	-	30	-
크레비스	30~50		50~70	
MYSC	25	-	75	-
아크임팩트자산운용	-	10	90	-
한국사회투자	60	5	15	20

자료: 기관별 자료 및 심층면담.

았다. 반면 소풍벤처스, IFK, 아크임팩트자산운용, 크레비스, MYSC 등은 보통주 매입 비중이 높았다.

(4) 임팩트 투자 집행 시리즈 단계

IFK, 소풍벤처스, 한국사회투자자는 시드단계에서 Pre-A 단계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크레비스와 시드, Pre-A, 시리즈 A 단계까지 다루며, 임팩트스퀘어는 시리즈 A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MYSC는 직접 운용 펀드에서는 LP로 출자한 다른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리즈 B 단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비저닝파트너스, 아크임팩트자산운용, D3, 아산나눔재단 등은 임팩트 생태계에서 시리즈 A 및 시리즈 B 단계 투자를 커버하고 있다. 한편 D3와 아크임팩트자산운용은 시리즈 C 투자까지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시리즈 C 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소셜벤처들의 비즈니스 및 임팩트 차원의 규모 및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시리즈 C 투자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임팩트 생태계 차원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3-9〉 임팩트 투자 집행 단계 구성 비중(투자금액 기준)

(단위: %)

투자 단계 조사 기관	Seed ~ Pre-A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상
인비저닝 파트너스	20~30	40~50	20~40	-
D3	10	50	25	15
IFK	90	10	-	-
소풍벤처스	90	10	-	-
임팩트스퀘어	-	대부분	-	-
크레비스	대부분	대부분	-	-
MYSC	70	30	-	-
아크임팩트 자산운용	10	40	40	10
한국사회투자	80	20	-	-
아산나눔재단	40	40	20	-

자료: 기관별 자료 및 심층면담.

2) 임팩트 투자 기준

가) 임팩트 투자 시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비중

인터뷰에 참여한 임팩트 투자기관 10곳 중 절반 이상인 6곳은 재무성과와 사회성과를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고 있다. 2곳은 재무성과에 더 비중을 두고, 2곳은 사회성과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무성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한 인비저닝파트너스, 한국사회투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기관은 사회성과를 임팩트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3의 경우 투자 전 딜소싱 검토단계에서는 사회성과를 중심으로

〈표 3-10〉 임팩트 투자기관의 재무성과 및 사회성과의 고려 비중

(단위: %)

성과별 비중 조사 기관	재무성과(%)	사회성과(%)	비고
인비저닝파트너스	80	20	사회성과는 전제조건에 해당함.
D3	50	50	사회성과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는 투자 검토 대상이 아님. 재무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을 경우, 투자를 집행하지 않음.
IFK	20~30	70~80	-
소풍	50	50	-
임팩트스퀘어	30	70	-
크레비스	90	90	-
MYSC	30	70	투자 초기에는 사회성과에 대한 고려 비중이 더 높으며, 투자 집행 이후에는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균형을 중시함.
아크임팩트자산운용	50	50	-
한국사회투자	100	0	사회성과는 투자 결정 이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사전 평가됨. 소셜 임팩트가 높지 않을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됨.
아산나눔재단	50	50	-

자료: 기관별 자료 및 심층면담.

검토하지만, 재무성과가 기대되지 않으면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MYSC의 경우 투자 초기에는 사회성과를 중시하나, 투자집행 이후에는 사회성과와 재무성과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등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성과와 재무성과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반투자 진행 시 투자 기준/정책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기관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팩트스퀘어, MYSC, 한국사회투자, 크레비스의 경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기업에게도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스퀘어와 MYSC의 경우 피투자기관이 소셜벤처가 아니어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반기업이라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 피투자기관이 소셜벤처의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며 소셜벤처와 같은 사회성과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투자 역시 일반기업이라도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임팩트 투자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크레비스의 경우 펀드의 주목적(재무적 목적)이 아닌 부목적으로 일반 창업자와 같은 일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투자 대상 기업이 일반기업이어도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이나 지향하는 가치가 운용사의 가치와 맞다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3) 임팩트 투자 프로세스

가) 임팩트 투자 프로세스

임팩트 투자 프로세스의 투자 발굴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까지의 구성은 기관별로 상이했다. 딜소싱에서부터 투자 집행, 사후관리(밸류업)까지는 유사하지만, 회수 이후의 후속지원까지의 단계를 임팩트 투자 프로세스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후관리의 방법도 후속투자 및 타기관 투자유치 지원에서부터 미션드리프트 방지, 조직문화 구축 등 다양했다. 이처럼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의 임팩트 투자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스퀘어는 딜소싱(10개)→사전미팅(5개)→대표에 대한 검증(역량, 비전, 팀구성) 위주의 IR 및 1차 평가(투자심의위원)→투자조건 협의(리스크 위주)→최종 실사 통해 컨펌→계약서 날인→투자금 집행→사후관리(2년)의 프로세스로 임팩트 투자를 진행한다.

한국사회투자는 투자예비단계(후보기업 수시접수, 1st meeting, 후보기업 screening)→투자 결정 단계(IR제안서, 프리젠테이션, 투자심사보고서 검토, 투자조건(term sheet) 검토 등)→투자심의위원회(투자금액 및 투자조건 확정)→계약 및 실행→투자 사후관리(후속투자 포함)→Exit의 순서로 임팩트 투자를 진행한다.

소풍은 발굴→투자 심의→투자 결정→회수→회수 이후 지원 노력까지를 임팩트 투자의 프로세스로 보고 있다. MYSC의 경우에도 딜소싱→딜 딜리전스→밸류업(사후관리/엑셀러레이팅)→엑시트의 단계로 진행하되, 후속투자 및 타기관 투자유치까지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D3는 발굴→심사역 사전 미팅→D3 전체 IR→회계실사/법무실사/컴플라이언스 체크→예비투자심→본투자심-투자 집행-밸류업(사후관리)의 프로세스로 임팩트 투자를 진행한다. D3는 임팩트 투자를 고도화하기 위해 4단계의 고도화 R&D cycle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① 판별(BM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② 측정(회사와 합의된 임팩트 KPI)-③ 심화(임팩트 관리를 통해 임팩트 방향성 점검)-④ 개선(구축된 데이터를 통한 판별모델 고도화 및 기업성장에 따른 임팩트 전략 제시) 등의 4단계를 의미한다. D3는 IPO가 가능한 소셜벤처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리즈 A 이전 단계에서의 임팩트 KPI 설정, 그리고 시리즈 A 이후 단계에서의 ESG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임팩트 투자 이후 IPO시점까지 회사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지지할 주주 구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자 구성에 대해 전략적 논의를 하며, 마일스톤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후속투자 집행, 동반 기관 투자자 발굴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임팩트 정의(Imapct Definition), 임팩트 실사(Impact

Due Diligence), 임팩트 관리(impact management), 임팩트 전달(Impact Delivery)의 4가지 단계로 임팩트 투자를 진행한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팩트 적합도 테스트, 임팩트 모델 테스트, 변화이론 테스트 및 임팩트 측정의 3가지 측면에서 실사를 실시하고 해당투자가 명확한 임팩트 지향점을 가지고 수행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투자 이후 비즈니스의 성장을 통해 임팩트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끔 지원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경영진과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써 임팩트 DNA를 회사의 경영 방식 및 조직문화에 녹여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미션이 주요 의사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사회 의석을 확보하여 경영진이 회사의 미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끔 지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 회수 이후에도 임팩트가 지속될 수 있게끔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분 보유기간 동안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 임팩트를 창출하는 요소가 내재화되도록 격려하고 있다. 또한 투자회수 논의 시 임팩트 지속성을 고려하고, 임팩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 구축 및 정관 반영 등을 함께 고민한다.

나. 임팩트 투자 성과관리 : 정의, 측정 및 평가

1) 임팩트 정의

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임팩트벤처 정의

국내외적으로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 및 펀드 자금유입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팩트 투자가 금융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한국금융연구원, 2020).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및 특징을 연구하기 위하여 임팩트 투자기관들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임팩트벤처 용어를 정의해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임팩트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포괄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셜벤처의 경우 임팩트 투자기관들 대부분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조직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즉 ‘(혁신성, 리스크 부담, 스케일업 가능성을 가진)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하여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사회적 임팩트와 재무적 이익을 함께 창출하는 조직’을 소셜벤처로 정의하고 있었다.

한편 소풍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자활/재활기업, 비영리조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소풍은 소셜벤처를 ‘혁신성, 기술적 접근성, 스케일업 등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벤처’로 정의하고 있다. 소풍의 한상엽 대표는 현장에서 소셜벤처를 비영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셜벤처기업이 법제화되면 소셜벤처와 비영리조직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임팩트벤처의 경우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기관이 소셜벤처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인비저닝파트너스, D3,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투자의 경우 소셜벤처를 ‘기업의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 증대에 있으며, 이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품/서비스/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벤처로서 기업 성장을 위한 적극적 영리추구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임팩트벤처는 ‘기업의 목적이 사회, 환경, 거버넌스 전반에 선한 임팩트를 내는 벤처로서 적극적인 영리 추구를 하는 것은 같으나 짧은 기간에 기대보다 큰 효과를 내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나) 임팩트 투자 및 임팩트VC 정의

다음으로 임팩트 투자는 국내 임팩트 투자생태계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임팩트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영향력’으로 설명했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임팩트를 ‘사회적/환경적인 문제를 규모 있게 해결하여 해당 문제의 해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D3는 ‘투자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성과’, IFK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크기’를 임팩트로 설

명했다. 소풍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내지는 가치 확산을 하려고 하는 시도나 그 시도로 인한 사회적 성과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임팩트 투자의 영역 측면에서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들의 경우 부동산, 지역개발금융, 대출/융자 등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언론이나 벤처생태계에서 임팩트 투자를 거의 영리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의 관점에서 소통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VC의 경우 임팩트 투자를 위한 자본이라는 기본적 개념에는 일관된 견해를 보였지만, 임팩트VC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기관별로 상이했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자체적 임팩트 판별 기준을 가지고 1) 의도성(intentionality)과 2) 측정 가능성(measurability)이 명확한 투자 행위를 하는 자본을 임팩트VC로 정의한다. MYSC는 위의 의도성, 측정성 외에 추가성(additionality)이란 개념을 추가하여 임팩트 투자를 통해 그동안 자본시장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기업을 추가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D3의 경우 소셜벤처에 모험자본을 투자하고, 피투자기업이 소셜벤처로서 성장하도록 돕고, 임팩트 투자를 알리고, 소셜벤처의 신규 투자자 발굴의 역할까지 하는 것을 임팩트VC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임팩트 측정/평가

가) 임팩트 측정/평가 시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 비중

피투자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등 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는 하지만 인비저닝파트너스, IFK, 소풍, 임팩트스퀘어, 한국사회투자 등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기관은 정량적인 지표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임팩트를 측정/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대부분의 사회성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변환하여 측정한다. 1차적 영역 판단은 정성적으로 하되 이후 가치평가단계(valuation)에서는 정량적 지표로 이를 전환하여 평가하고 있다. IFK 역시 기본적으로 임팩트를 정량화하여 측정/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 소풍과 임팩트스퀘어는 100%를 기준으로 할 때 정성적 지표 30%, 정량적 지표 70%, 한국

사회투자는 정성적 지표 25%, 정량적 지표 75%의 비중으로 임팩트를 측정/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YSC의 경우 정성적 지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임팩트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성적 지표 80%, 정량적 지표 20%의 비중으로 평가한다. 이를 변화이론(theory of change)과 결합하여 자체 개발한 임팩트 측정 양식(Way to ESG)으로 공유 및 소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3와 크레비스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각각 50%씩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3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창업동기, 기업문화, 임팩트 생태계에 미치는 결과(outcome)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UN SDGs 부합 여부, 임팩트 KPI 측정여부, B-corp 등 외부 인증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요소와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 가치와 잘 융합되어 있는지 등도 정량화하여 평가한다.

크레비스의 경우 임팩트를 전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량·정성적 평가 모두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정량적 평가는 재무적 가치, 고용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정성적 평가의 경우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성과, 또는 정량적인 경제성과는 작지만, 정성적으로 의미가 큰 임팩트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예컨대 크레비스가 진행한 테라로사 임팩트 투자 사례의 경우, 개발도상국 12개 국가에서 커피를 매입할 때 영향을 받는 농가의 수는 대략 5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경우 매출은 약 10억 원 규모 정도로 크지 않다 해도, 5만 가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의미 있는 투자로 본다 고 한다.

나) 임팩트 측정/평가 시스템

임팩트 투자기관의 임팩트 측정/평가 시스템을 투자 스크리닝 단계, 투자 집행 후 단계,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체계를 살펴본다.

(1) 임팩트 투자 스크리닝 단계의 개별기업 사회성과 측정/평가체계

임팩트 투자 스크리닝 단계에서 임팩트 투자 여부를 결정할때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임팩트 측정/평가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임팩트 평가모델을 활용하는 경우가 10곳 중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IMP, IRIS+, B Corp, SDG의 세부목표 등을 차용하거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바꾼 모델을 활용하고 있었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경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소개한 방법론인 Impact Multiple Money(IMM)를 바탕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함께 발전시킨 가치평가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시리즈 B 단계에 주로 투자하는 소셜밸류 투자조합(정식명칭: 와이드 이스케이 케이디비 소셜밸류 투자조합)에서 투자한 건에 대해 IMM을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D3의 경우 다양한 해외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거시적 목표 수준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 Toniic Impact Theme Framework, Impact Reporting and Investing Standards(IRIS) Metrics를 활용하여 임팩트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되, 해당 기업이 신뢰성 높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및 평가(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SK 사회적성과 프로그램 참여, B Lab의 B Impact Assessment(BIA) 적용 등)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함께 참고하여 투자 검토시부터 창업가와 사회/환경적 임팩트 KPI를 협의한다. 또한 합의된 임팩트 KPI에 대해서는 재무적 성과와 함께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IFK는 IMP에 기반한 보고형식을 사용하되 평가는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IMP는 임팩트 보고를 위한 일종의 프레임워크이므로, 화폐화를 하거나 SRI를 접목하여 측정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내 평가모델 중 사회적기업진흥원의 SVI도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투자 여부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모델은 아니라고 한다.

소풍은 UN SDGs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임팩트 평가 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IMP를 기반으로 한 초기 스타트업 맞춤형 평가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한국사회투자자의 경우 IMP와 함께 Impact Valuation

Model(사회적가치연구원), Social Value Index(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

MYSC는 LP기관으로 참여한 펀드의 경우 비콥에서 개발한 BIA(B Impact Assessment)를 사용하여 투자 기업의 임팩트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은 표준화된 특정모델을 활용하지는 않고 재단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2) 임팩트 투자 집행 후 개별기업 사회성과 측정/평가체계

임팩트 투자 집행 이후에도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기관들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임팩트를 측정 및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팩트 측정/평가 체계, 임팩트 리포트 발간, 분기별 보고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연간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소셜밸류투자조합의 경우 사후적인 임팩트 평가를 수행한다. 한국사회투자의 경우 IMP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임팩트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D3는 투자 전 회사와 합의된 임팩트 KPI가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회사의 실무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성장성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보고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투자집행이 완료된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별 임팩트리포트를 발간하고 출자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임팩트 투자집행 및 평가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YSC는 비랩의 임팩트 측정/평가체계인 BIA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IRIS+ 체계와 IMP를 융합한 자체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농금원 펀드의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펀드별 임팩트 리포팅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3) 임팩트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의 사회성과 측정/평가체계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임팩트 투자 포트폴리오의 임팩트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및 인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팩트 투자 시 포트폴리오의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기관이 자체적인 임팩트 측정/평가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SDG와 IMP의 모델에 기반하여 각 기관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팩트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주로 IMP, UN SDG, BIA 등 해외평가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예: 한국사회투자) 사회적 가치연구원에서 개발한 IVM,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SVI 등을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임팩트 투자기관 운영

1) 임팩트 투자 목표수익률

IRR(Internal Rate of Return)을 기준으로 임팩트펀드의 목표수익률은 대체로 5% 이상~15% 미만의 목표 IRR을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의 경우(예: 인비저닝파트너스, 크레비스) 20% 이상, 아산나눔재단의 경우 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기관들이 응답한 실제 재무성과 현황을 IRR 기준으로 살펴보면 D3의 경우 20% 이상(투자집행 완료된 펀드 기준), 인비저닝파트너스, 소풍(고유계정 기준), 크레비스의 경우 15% 이상의 재무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IFK, 임팩트스퀘어, MYSC의 경우 5% 이상~15% 미만, 한국사회투자의 경우 0% 이상~5% 미만의 재무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산나눔재단의 경우 IRR 관점에서 결산이 된 펀드는 아직 없다고 한다.

2) 임팩트 투자기관 운영

가) 조직관리

(1) 일반 VC/금융권 출신의 비중

조직 전체에서 볼 경우 일반 VC/금융권 출신 구성원의 비율은 대체로 높지 않으나, 심사역에 일반 VC/금융권 출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인비저닝파트너스와 크레비스이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투자팀의 경우 인비저닝파트너스 입사 전에는 모두 일반 VC 혹은 금융권, 컨설팅, 투자회사에서 근무한 인력인

반면, 크레비스의 경우 VC나 금융권 출신의 심사역은 없고 대신 창업자로서 투자 유치 과정을 경험해 본 창업자 출신의 인력 위주로 심사역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MYSC의 경우 창업가 출신 2명 외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의 책임투자(ESG) 팀장 출신의 경력직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투자 심사역 중 임팩트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심사역의 비중은 기관별로 다양했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경우 투자심사역 6명 중 6명 전원(100%), D3는 8명 전원(100%), IFK는 4명 중 1명(25%)이었다.

소풍의 경우 모든 투자가 임팩트 투자이며, 2022년 3월 현재 전체 임직원 16명 중 투자인력 6명(파트너 포함) 전원이 투자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 MYSC의 경우 전체 임직원 49명 중 엑셀러레이팅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심사역이 11명, 투자위원회 소속으로 투자가 주업무인 직원이 7명이다.

(2) 인재채용 기준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임직원 채용 시 기본역량과 함께 투자/비즈니스

〈표 3-11〉 임팩트 투자기관별 인재 채용기준 특징

임팩트 투자기관	인재 채용기준
인비저닝파트너스	투자 및 비즈니스 경력 문제 해결 역량, 투자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D3	임팩트 투자에 대한 철학 및 신념 산업 전문성을 갖춘 이공계 및 글로벌 금융투자 경력 우대
MYSC	사회적기업가정신, 자기 주도성과 리더십, 문제해결력, 공공기관-투자사-기업-스타트업의 언어 이해
임팩트스퀘어	감수성, 소규모 조직(30인 이내)에 맞는 인재
크레비스	사회적목적/가치 기본역량,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의지
한국사회투자	기본역량 개인적 미션(일하는 목적)

자료: 기관별 자료 및 심층면담.

관련 경력,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중시하고 있었다. 특히 정성적인 역량을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보는데, 이는 공감능력,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각 투자기관의 투자철학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3의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이공계 박사 및 글로벌투자은행 출신 시니어의 심사역 비중이 높으며, 임팩트스퀘어의 경우 기존 조직문화와 가치관, 투자철학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구성원 수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고 30명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인재 채용에 있어서 기관별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MYSC는 임팩트투자 생태계의 확장과 비례하여 현재 49명 규모의 임직원 수를 계속 키워나갈 계획이다.

(3) 임팩트 분야 전문성 강화 교육/지원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내부 세미나를 통한 구성원 간의 정보 및 지식공유부터 외부세미나, 외부네트워킹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원의 임팩트 투자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재능개발을 지원하는 펀드를 제공하는 임팩트 투자기관(크레비스)도 있었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경우 특히 기술 부문의 교육을 내부 세미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D3는 2017년 이후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포럼인 ‘임팩트나이즈’를 주관해오고 있으며, 국내외 임팩트 포럼에 투자심사역들이 참여하고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YSC는 내부 심사역 학교 운영을 통해 액셀러레이팅과 병행하며 투자 심사를 진행하도록 돕고 있으며,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에 구성원들이 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Merry Year Asset Program이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풍의 경우 임팩트 및 IT·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개월에 1번꼴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내부 세미나를 하고 있다. 임직원이 벤처캐피털협회 등 외부 교육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지원 및 독려하고 있다. 또한 알럼나이(피투자사) 대표 대상으로 임팩트 및 신기술 관련 교육과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한편 크레비스는 내부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회사와 병행해서 석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인 재능개발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현장경험 및 기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기술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2〉 임팩트 분야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지원의 예

기관명	임팩트분야 전문성 강화 교육/지원 방법
인비저닝파트너스	내부 임팩트 영역별 스터디(기술부문교육 집중) 등
D3	글로벌 임팩트투자자 포럼(임팩트나이츠) 주관 국내외 임팩트 포럼 참여 및 내부 세미나
MYSC	내부 심사역학교 운영, 펀드 출자 지원 인센티브 등
크레비스	재능개발펀드(Talent Development Fund) 내부교육 프로그램, 기술자격증 취득지원 등
MYSC	내부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국사회투자	투자자 양성프로그램 네트워킹 지원 등

자료: 기관별 자료 및 심층면담.

나) 피투자기관 관리

(1) 임팩트 투자 후 사후관리 및 지원

IFK, 소풍, 임팩트스퀘어, 크레비스, MYSC, 한국사회투자 등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기관은 투자 후 재무성과 및 사회성과 창출을 위한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3의 경우 임팩트 투자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시 첫째, 회사의 각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둘째, 자율성에 기반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투자 회사와 합의된 ‘임팩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재무성과와 함께 분기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회성과를 관리한다. 이때 ‘D3 임팩트 고도화 사이클’을 통해서 판별-측정-심화-개선 과정을 수행하면서 딜 발굴 및 소셜벤처로의 성장 지원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회사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정관에 명시’,

‘사회성과보고서 발간’ 등의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있으며, 피투자기업 간의 요청에 따라 기업/투자자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임팩트 투자 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투자자의 경우 피투자 회사를 한국사회투자 임팩트 리더스 클럽에 회원으로 포함시켜 투자, 액셀러레이팅, 홍보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 미션 드리프트 관련 관리 또는 대응계획

피투자 회사의 미션 드리프트(mission drift), 즉 본래 추구하던 사회적 가치 또는 기업의 소셜미션에서 이탈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사례가 드물지만 일부 발생한 경우 임팩트 투자회사들은 투자 철회 혹은 투자금 회수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경우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미션 드리프트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여 추가적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거나, 비용 긴축, 다른 성장 옵션 고려 등 전략적 조언을 통해 미션 드리프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IFK 역시 미션 드리프트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스크리닝에 더욱 집중하는 편에 속한다. 기업가의 미션이나 백그라운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사전 스크리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미션 드리프트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기에, 사전 스크리닝 80%, 사후관리 20% 정도의 비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피투자 기관이 사업 초기 단계인 경우 이사회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D3는 재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도 함께 증대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이 미션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것은 임팩트 투자자의 사후관리 및 지원의 실패로 본다. 피투자 회사의 미션 드리프트 발생 시 이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는 않지만, 재무적 관점에서 ‘후속 투자’보다는 ‘회수’ 포지션으로 이동한다고 응답했다.

임팩트스퀘어는 6개월마다 미션드리프트 위원회를 열어 모니터링을 하

고 있다. 초기 단계의 기업인 경우 특히 내부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대표의 가치관이 변하거나 비즈니스모델이 바뀌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

MYSC는 피투자 회사가 비콥(B Corp)이 되도록 권유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후관리 단계 및 회수 이후 단계에도 피투자 회사가 미션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크레비스의 경우 미션 드리프트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의심되는 경우 바로 최소한의 풋옵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응답했다. MYSC, 한국사회투자 등의 경우에도 미션 드리프트가 일어난 투자 사례를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를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LP기관과의 협력 : 위탁운용사 선정 시 평가요소

GP들에게 LP기관이 위탁운용사 선정시 중요하게 보는 평가요소는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이는 LP의 성향에 따라 다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운용사의 신뢰도(리스크관리 역량), 임팩트 측정 및 보고 및 측정 정량화, 임팩트 위싱 방지, 전문인력의 능력/경력, 대표 펀드매니저의 철학/자질, 기존 투자포트폴리오, 기존 운용수익 성과 등의 요소가 LP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LP기관인 아산나눔재단은 임팩트 투자를 위한 출자사업 진행 시 위탁운용사에게 기대하는 점으로 재무성과와 함께 피투자기업의 성장지원, 임팩트벤처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꼽았다.

LP로도 활동하며 그동안 5개 펀드에 출자한 MYSC는 생태계 차원에서 투자 관점의 다양성을 높이고, 최초 시작되는 테마 펀드로서 결성이 쉽지 않은 테마(도시재생, 클라우드펀딩, 개발협력 등)에 전략적으로 LP 참여를 하고 있다.

라) 일반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자들은 일반VC들과 협업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MYSC의 경우 일반VC들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협업 제안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의 경우

2021년 더웰스인베스트먼트와 공동운용사 선정이 되었고 유진투자증권 과도 공동운용사로 성동임팩트 벤처투자조합을 202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그 외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다양한 VC들과 공동운용사를 준비했거나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사들이 협업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크임팩트자산운용의 경우 딜소싱을 위한 협력, IFK의 경우 로컬 플레이어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항상 일반VC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리즈 B 이상에서는 펀딩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VC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D3의 경우 리드투자자로서 일반VC와의 공동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한편 투자기관들은 일반VC들과 협력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운 점으로 기관 간의 투자철학이 충돌할 가능성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투자사 선발 기준, Exit 기준에 대한 차이, 정량화된 재무적 지표 외의 정성적 지표 활용에 대한 합의 등으로 인해 협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투자 프로세스별 역할분담 또는 ‘독자 딜 00%, 공동 딜 00%’로 역할을 분담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심사하는 방법 등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또한 시중은행 등 금융사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규모있는 펀드를 만들어야 하므로 LP 확보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라. 임팩트 투자 관련 정책에 관한 제언

1) 정부의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일반적 견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임팩트 투자사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② 어느 정도 그러하다 ~ ③ 보통의 사이 수준)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모태펀드(KVIC)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본 유입을 가능하게 하여 생태계 내 관심을 유도한 것, 임팩트펀드를 처음 시작할 때 소셜벤처를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UN SDGs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보면서 소셜벤처의 다양성을 인정한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사회적 경제(정부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와 일반 벤처투자 생태계의 경계에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위치함에 따라 정책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점, 사회적 경제 정책의 지원 위주 시스템과 일반 벤처투자 관련 정책의 투자 위주 시스템은 속성이 매우 다르나,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소셜벤처/임팩트벤처에 대한 이해 및 맞춤형 정책이 아쉬운 점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거론되었다.

임팩트벤처의 수(현재 약 5만여 개 추산) 대비 자금공급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펀드의 임팩트 투자펀드는 기존 펀드에서 목적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임팩트 투자를 위한 전용 자금/펀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정부펀드 위주에서 민간펀드 활성화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한국사회투자의 경우 비영리기관의 임팩트펀드 운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 임팩트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 제안사항

조사 대상 기관들은 향후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아래 <표 3-13>과 같이 비용 지원, 세제 혜택, 제도 개선, 비영리·금융 생태계 참여 활성화, 임팩트 투자기관 지원, 공공자금 참여를 통한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표 3-13> 임팩트 투자기관의 정책지원 요청

정책 분야	임팩트 투자 관련 정책지원 요청
비용 지원	- 임팩트 투자 평가 보고서 발간 지원(신뢰도 높은 검증/평가 기관의 보고서 작성 시 비용 지원)
세제 혜택	- 임팩트벤처 투자 펀드에 출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간접) - 임팩트벤처 투자 시 일반벤처 투자와 유사한 세제 혜택(직접)
제도 개선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KPI/IRR 활성화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시스템 구축(SVI)
비영리·금융 생태계 참여 활성화	- 대기업 비영리재단 PRI & MRI 규정 신설 및 투자 허용 - 금융회사 임팩트 투자비용 의무화 - 개인투자자 참여 허용 개방형 임팩트펀드(자산운용사) - 임팩트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 시장 활성화

〈표 3-13〉의 계속

정책 분야	정책 제언
임팩트 투자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간 경쟁보다는 협력 및 역량 강화 - 보증 프로그램 개선(민간 임팩트 투자자에 대한 보증) - 민간 임팩트 투자자 역할 강화 및 지원 육성 - 민간 임팩트 액셀레이터(accelerator) 지원 증대로 임팩트벤처 역량강화 지원
공공자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의 민간 임팩트 투자생태계 활성화 마중물 역할(촉매 자본, 선손실, 인내자본, 이자율보조, 기술지원, 위험자본 등) - 민간자금 조성 시 공공자금 매칭 비중 확대(대손 부담) - 성장기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 자본 공급

자료: 심충면담.

제3절 국내 임팩트벤처 대상 조사

1. 조사 개요

연구진은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의 핵심 전문가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투자자, 즉 자금공급자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철학 및 운영 프로세스, 의견 등을 분석한 후, 자금수요자인 임팩트벤처³⁹⁾를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 및 견해, 임팩트 투자 유치 현황, 니즈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를 수행했다.

가. 조사 방법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 임팩트 투자 유

39) 제2절의 조사 결과 임팩트 투자자들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일반벤처 중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가 명확한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을 전반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본 연구팀은 제3절에서 ‘임팩트벤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다. 본 연구에서 임팩트벤처는 ‘재무적/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임팩트 투자자들이 임팩트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초기 기업’으로 정의한다.

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대상은 임팩트벤처의 대표자를 포함한 C레벨 및 주요 실무진(사회적 가치 관련 담당 실무진)으로 설정했다. 설문 대상 기업에 더욱 용이한 접근을 위해 임팩트 얼라이언스⁴⁰⁾의 협조를 받아 임팩트 얼라이언스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1차 배포했으며, SK/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그램,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온드림펠로우 프로그램, KOICA CTS/사회적연대경제 프로그램 등 임팩트벤처 대상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임팩트벤처를 추가 선정하여 설문을 배포했다.

나. 조사 내용 및 구성

국내 임팩트벤처 대상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3개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 존재 여부, 임팩트 측정/평가 경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질문을 다르게 배치하여 임팩트벤처의 다양한 니즈 및 의견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1) 임팩트벤처의 기본 정보

설문 대상 기업의 임팩트 지향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 인식 수준, 사회문제 해결과 비즈니스와의 연결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6개 문항을 구성했다.

〈표 3-14〉 임팩트벤처 기본 정보 문항

문항 번호	질문 내용
1	귀하의 조직이 해결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무엇입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예: 장애인의 이동 권리 보장, 소외계층 대상 교육 서비스 제공, 신재생에너지 발전 솔루션 제공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 등).
2	귀하의 조직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 및 솔루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40)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사, 중간지원기관 등 소셜임팩트 생태계를 이루는 조직들의 협의체로 2019년 출범한 이래 현재 118개의 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표 3-14〉의 계속

문항 번호	질문 내용
3	귀하의 조직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 및 솔루션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어떤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의 조직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5	귀하의 조직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재무적 가치의 창출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6	귀하의 조직은 사업 운영시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상대적 비중을 각각 몇 % 정도로 고려하십니까? (합계 100%)

자료: 저자 작성.

2)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8개 문항을 구성했다. 문항의 내용은 임팩트 및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수준, 임팩트 측정 및 관리와 관련한 활동의 수행 경험 여부 및 수행 목적 등을 주제로 구성했다.

〈표 3-15〉 임팩트벤처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문항

문항 번호	질문 내용
7	귀하(또는 귀하의 소속 조직)는 임팩트(impact)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8	다음 중 귀하의 소속 조직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실행한 적이 있는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활동은 무엇입니까?
(1)	임팩트 측정(지표 체계 및 측정 시스템 구축)
(2)	정기적인 임팩트 리포트 발간
(3)	임팩트/사회성과/사회적가치와 관련한 워크숍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4)	해당 사항 없음
9	위에서 제시된 활동 외에 임팩트 측정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실행한 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10	향후 1년 이내에 임팩트 측정 결과를 공유한다면, 아래에 제시된 대상 중 어떤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계획이 있습니까?
(1)	투자자
(2)	고객

〈표 3-15〉의 계속

문항 번호	질문 내용
(3)	내부 임직원
(4)	대중
(5)	언론
(6)	정부 및 공공기관
(7)	기타(직접 입력)
11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2)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셜벤처 판별기준
(3)	비랩의 B-corp 인증제도(비임팩트평가)
(4)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5)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6)	REDF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7)	하버드 비즈니스리뷰에서 소개된 RISE FUND의 Impact Multiple of Money (IMM)
12	다음 중 귀사에서 사업 운영, 사회성과 관리, 임팩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직접 활용한 적이 있는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및 임팩트 측정/관리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11번과 동일한 보기 제시)
13-1	(위의 질문에서 활용한 적이 있는 경우) 위에서 답변한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또는 임팩트 측정/관리 방법론을 활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사업 운영 및 개선 전략 수립시 참고하기 위해
(2)	사업의 성과(재무성과 및 사회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3)	사업 소개 자료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4)	임팩트 투자 유치를 위한 자료 생성에 참고하기 위해
(5)	임팩트 투자를 통해 창출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6)	임팩트 투자를 통해 창출한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7)	기타(직접 입력)
13-2	위에서 답변한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또는 임팩트 측정/관리 방법론을 활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13-1과 동일한 보기 제시)

자료: 저자 작성.

3)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 수준과 임팩트 투자 자금 수요자의 니즈 및 페인포인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12개 문항을 구성했

〈표 3-16〉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 문항

문항 번호	질문 내용
14	귀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15	임팩트 투자와 일반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귀하의 소속 조직은 임팩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ex. 임팩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IR 준비, 자료 발송 및 컨택 등)를 실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17	(16번에서 ‘예’로 대답한 경우)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18	귀하의 소속 조직은 임팩트 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으십니까?
19	(18번에서 ‘예’로 대답한 경우) 임팩트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20	(18번에서 ‘예’로 대답한 경우) 임팩트 투자 유치 전 아래의 사항에 대한 귀사의 기대수준은 어떠했습니까?
(1)	임팩트 투자사의 자금지원
(2)	임팩트 투자사의 기술지원(마케팅, R&D 등)
(3)	임팩트 투자사의 네트워킹 지원
21	(18번에서 ‘예’로 대답한 경우) 임팩트 투자 유치 후 아래의 사항에 대한 귀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1)	임팩트 투자사의 자금지원
(2)	임팩트 투자사의 기술지원(마케팅, R&D 등)
(3)	임팩트 투자사의 네트워킹 지원
22	향후 2년 이내에 귀사가 임팩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목표하는 임팩트 투자 유치 금액은 얼마입니까?
23	향후 2년 이내에 귀사가 임팩트 투자를 유치할 확률은 몇 %라고 예상하십니까?
24	귀하는 임팩트벤처들의 입장에서 현재 임팩트 투자 유치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임팩트벤처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자료: 저자 작성.

다.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실행 여부, 유치 여부 등에 따라 문항을 세분화하여 임팩트벤처의 의견 및 인식 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으며,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유치 전/후의 기대수준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임팩트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보완 지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2. 조사 결과

가. 임팩트벤처 기본 정보 및 가치 지향성

본 연구에서는 임팩트벤처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임팩트벤처 20개의 응답을 수집했다. 임팩트벤처는 임팩트 투자의 자금수요자임을 고려하여, 앞서 살펴본 임팩트 투자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임팩트벤처의 기본 정보 및 지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업유형 및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 지향성 수준’, ‘사업 운영 시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고려 비중’을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특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임팩트벤처 기본 정보

설문 조사 대상 임팩트벤처들의 기업유형으로는 소셜벤처 6개(30%), 인증/예비사회적기업 7개(35%), 사회적 가치/임팩트를 추구하는 일반벤처 6개(30%), 무응답 1개(5%)가 있었다.

이들이 해결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SDG 기준으로 복수응답한 결과 1번 2건, 3번 3건, 4번 5건, 5번 1건, 6번 1건, 7번 2건, 8번 8건, 9번 1건, 11번 2건, 12번 1건, 15번 1건, 17번 1건으로 나타났다. 8번 일자리 창출과 4번 장애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17가지 지속가능목표가 골고루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유형 및 사회문제 측면의 다양성과 함께 임팩트벤처의 다양성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즉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다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 다양하며, 이에 적합한 기업유형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임팩트벤처의 다양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7〉 임팩트벤처의 기업유형 및 사회문제 해결 분야

기업 번호	기업 유형	해결하고 있는 사회문제	비즈니스 솔루션 (해당 SDG)
1	소셜벤처	공동주거를 통한 취약계층 및 청년의 주거비용 절감	공유주택 운영 및 컨설팅 (SDG 11)
2	N/A	신진작가 소득증대	다양한 소득창출 기회제공 (N/A)
3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 를 추구하는 일반벤처	여성이 더 쉽게 건강해지도록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친환경 월경용품 제작 및 월 경주기 예측, 건강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SDG 3)
4	소셜벤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청각장애인 고용(택시운전기 사). 운송수입금 수익 창출 (SDG 8)
5	예비 사회적 기업	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 스포츠 교육 서비스 제공	스포츠 교육 기획 및 강사 연계 (SDG4)
6	인증 사회적 기업	다문화 가정 이유식 제공, 독 거노인 고독사 해결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한 단계 별 이유식 (N/A)
7	소셜벤처	차세대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이동 문 제 개선	소재/부품/장비 중 부품과 장 비 직접 생산 및 제품 제작, 접자와 촉각 관련 SW 개발 (SDG 4, 6, 11)
8	예비 사회적 기업	취약 무용수들에게 양질의 일 자리 제공	자체 해외 취업 프로그램 개 발 및 해외 극장과의 계약 체 결을 통한 국내 취약 무용수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 (SDG 8)
9	인증 사회적 기업	장애인 고용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는 고체 화장품 제조 및 판매 (SDG 3)

〈표 3-17〉의 계속

기업 번호	기업 유형	해결하고 있는 사회문제	비즈니스 솔루션 (해당 SDG)
10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를 추구하는 일반벤처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	말라리아 등의 질병 진단이 빠르게 될 수 있는 의료진단 솔루션 제공 (SDG7)
11	예비 사회적 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과 삶의 질 개선	할당기업과 협업하여 ESG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전개함 (SDG 8)
12	인증 사회적 기업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상담, 매칭 서비스 제공 (SDG8)
13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를 추구하는 일반벤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을 통해 일자리의 행복도 및 질 향상	혁신, 조직문화 개선, 문제해결 등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게 교육, 컨설팅, 코칭 제공 (SDG 8)
14	소셜벤처	개발도상국 청년들의 실업 문제	아프리카 현지식 비즈니스를 통한 청년 훈련 및 일자리 제공 (SDG 1, 4, 8)
15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를 추구하는 일반벤처	사회혁신가들의 심리적 소진 및 팀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조직 문화 정립	공감 소통 교육 및 코칭, 퍼실리테이션 진행, 소통 도구 제작 (SDG 3, 4, 8)
16	소셜벤처	나무를 심어 환경문제 해결	숲조성 서비스 제공, 반려나무 판매, 공정무역 커피 생산 (SDG 15)
17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를 추구하는 일반벤처	사회혁신, 비영리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지식의 필요성 문제	사회변화를 읽고, 새로운 형태의 현장 실험과 협업을 통한 지식 창출 (SDG 4, 5, 9, 17)
18	소셜벤처	대나무 생산지 빈곤 경감 및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대나무 칫솔 생산 및 판매 (SDG 8, 12)
19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를 추구하는 일반벤처	신재생에너지 발전 솔루션 제공	접근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SDG 7)
20	인증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온라인 특화 물류서비스 (SDG 1)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2) 임팩트벤처의 가치 지향성

설문 대상 임팩트벤처의 가치 지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각각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사회적 가치 4.7/5점, 재무적 가치 4.6/5점으로 나타났다으며, 해당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사회적 가치, 재무적 가치 공히 95% 이상 나타났다.

또한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균형 측면에서 임팩트벤처가 고려하는 가치의 상대적 비중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재무성과 비중 55%, 사회성과 비중 45%로 나타났다. 이는 임팩트벤처들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 거의 5:5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75%의 기업은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비중을 30~70% 사이에

〈표 3-18〉 임팩트벤처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고려 수준

질문 내용	설문 결과(5점 만점, n=20)		
	평균	4점 이상	2점 이하
귀하의 조직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4.7	95.4%	0%
귀하의 조직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재무적 가치의 창출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4.6	95.5%	0%

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임(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지 않다).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표 3-19〉 임팩트벤처의 사업 운영 시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고려 비중

(단위: %)

	기업 평균 고려 비중 (총합 100%)	30% 미만	30% 이상 70% 미만	70% 이상
재무성과	55	0	75	25
사회성과	45	15	75	10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두면서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재무성과에 70% 이상의 비중을 둔다는 응답이 25%, 사회성과에 70% 이상의 비중을 둔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난 것도 재미있는 결과이다. 이는 임팩트벤처의 가치 지향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팩트벤처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나.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인식

1) 임팩트의 정의

기업별 임팩트의 정의를 살펴본 결과, 임팩트는 대체로 ‘지속가능성’, ‘긍정적인 가치 또는 변화’, ‘사회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임팩트를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또는 비즈니스/솔루션과 직결되는 특정 사업의 성과와 연계하여 정의하고 있었다. 어떤 기업은 구체적인 임팩트 측정지표를 거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3-20〉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정의 내용

기업 번호	질문 내용
	귀하(또는 귀하의 소속 조직)는 임팩트(Impact)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1	장기 투자(long-term investment)
2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영향을 주는 것
3	서비스가 부족한 시장에서의 가치 창출(create value at underserved market)
4	취약계층 고용 증가 및 급여수준 제고
5	성별, 소득수준, 장애, 연령 제약 없이 스포츠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지역균형 발전 기여
7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적정가격에 공급하여 많은(또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일
8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정도
9	발달장애인 고용인원 및 근무 개월 수

〈표 3-20〉 계속

기업 번호	질문 내용
	귀하(또는 귀하의 소속 조직)는 임팩트(Impact)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10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된 긍정적 변화/결과
11	화석연료 대체제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화하여 실제적인 온 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게 하는 것
12	중장년의 일자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13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조직의) 임팩트를 높이는 것
14	사회적 가치 달성을 통한 영향력
15	어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16	문제의 크기
17	발굴되지 않았던 역량들이 발견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협업 의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가는 것
18	지속가능한 사회변화
19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내재화해야 하는 가치
20	연매출 10억 원당 취약계층 고용 인원수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2)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현황

가)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활동 현황

임팩트벤처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실행한 적이 있는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활동으로는 임팩트 측정(지표 체계 및 측정 시스템 구축), 임팩트/사회성과/사회적가치 관련 워크숍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시된 보기 문항 외에도 ‘사회성과 인센티브 참여’, ‘FGI를 통한 (사업 활동이 창출한 임팩트의) 사례 수집’, ‘조직 내부의 사업 회고 과정을 통한 임팩트에 대한 논의 진행’, ‘제품의 LCA(환경 전과정 평가)’, ‘전문연구기관과의 임팩트 측정 연구 진행’ 등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활동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임팩트 측정 및 관리 방식(정량화, 정성적 결과 위주의 분석

등)뿐만 아니라 측정 및 관리 시의 협력 기관(연구기관, 컨설팅 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 여부(조직 내부 자체 진행 또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활동 현황을 요약한 결과는 <표 3-21>과 같다.

<표 3-21>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활동 현황

	선택 비율(복수 선택, n=20) 및 기타 답변 세부 내용
임팩트 측정(지표 체계 및 측정 시스템 구축)	60%
임팩트/사회성과/사회적가치와 관련한 워크숍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60%
정기적인 임팩트 리포트 발간	15%
해당 사항 없음	15%
기타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활동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 참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임팩트 측정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사업별 임팩트 리포트 작성
	FGI를 통한 실질적 도움이 된 사례 위주의 조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 기관과의 임팩트 측정 연구협력
	매년 사업에 대한 회고와 평가
	임팩트에 대해 조직 구성원과 함께 정리 및 대화
	제품 판매로 인해 대체한 플라스틱 양 측정
	제품 LCA 진행
	투자사를 통한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진행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나)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결과 공유 희망 대상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 활동 목적과 측정 결과의 활용 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1년 이내에 임팩트 측정 결과를 특정 이해관

계자에게 공유할 경우 원하는 공유 대상이 누구지에 대해 설문했다.

분석 결과 투자자(85%), 고객(85%), 내부 임직원(85%)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primary stakeholder)가 임팩트 측정 결과의 주요 공유 희망 대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을 통해 대중(50%), 언론(50%), 정부 및 공공기관(45%) 등의 2차 이해관계자(secondary stakeholders)에 대한 결과 공유 의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투자자, 고객, 내부 임직원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결과 공유 희망 대상 분석 결과는 <표 3-22>와 같다.

<표 3-22>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측정 결과 공유 희망 대상

(단위: %)

	선택 비율(복수 선택, n=20)
투자자	85
고객	85
내부 임직원	85
대중	50
언론	50
정부 및 공공기관	40

주: 향후 1년 이내에 임팩트 측정 결과를 공유할 경우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문했음.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3)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에 대한 인식

임팩트벤처의 기존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5점 만점에 2.1점~3.6점 사이)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IMP(Impact Management Project)와 같이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들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시 사용하는 측정 체계에 대한 임팩트벤처의 인식 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이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3-23>과 같다.

<표 3-23>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에 대한 인식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구분 (질문: 귀하는 제시된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설문 결과(5점 만점, n=20)		
	평균	4점 이상	2점 이하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2.6	25%	45%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셜벤처 판별기준	3.6	65%	15%
비랩의 B-corp 인증제도(비임팩트평가)	3.6	65%	10%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3.0	25%	35%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3.6	60%	30%
REDF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2.3	20%	70%
하버드 비즈니스리뷰에서 소개된 RISE FUND의 Impact Multiple of Money(IMM)	2.1	15%	75%

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임(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지 않다).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4)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활용 현황

임팩트벤처의 기존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평가 기준/인증 체계 활용 여부, 활용한 경험에 있는 평가 기준/인증 체계 현황, 활용 목적,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기존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를 활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SK 사회성과인센티브(SPC)(45%)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셜벤처 판별기준(40%)을 가장 많이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비랩의 B-corp 인증제도의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임팩트벤처의 인식 수준(65%가 알고 있음) 대비 실제 활용도(25%)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에 대한 인식

(단위: %)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구분 (질문: 다음 중 귀사에서 사업 운영, 사회성과 관리, 임팩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직접 활용한 적이 있는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및 임팩트 측정/관리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설문 결과 (복수 선택, n=20)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5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셜벤처 판별기준	40
비랩의 B-corp 인증제도(B 임팩트평가)	25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25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45
REDF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5
RISE FUND의 Impact Multiple of Money(IMM)	0
해당 사항 없음/기타	35

주: 기타 임팩트 측정/관리 방법론으로는 자체 FGI, 자문 등이 있었음.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표 3-25〉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활용 목적

(단위: %)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활용 목적 구분	기존 활용 목적 (복수 선택, n=13)	향후 활용 목적 (복수 선택, n=20)
사업 운영 및 개선 전략 수립시 참고하기 위해	38	45
사업의 성과(재무성과 및 사회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85	80
사업 소개 자료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23	35
임팩트 투자 유치를 위한 자료 생성에 참고하기 위해	31	20
임팩트 투자를 통해 창출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38	35
임팩트 투자를 통해 창출한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31	45
해당 사항 없음	38	-

주: 기존 활용 목적은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13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음.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임팩트 평가 기준/인증 체계의 주된 활용 목적은 사업의 성과(재무성과 및 사회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함(기존 활용 목적 85%, 향후 활용 목적 80%)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활용 목적으로는 향후 사업 운영 및 개선 전략 수립 시 참고하기 위해서(45%), 임팩트 투자를 통해 창출한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서(45%), 라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 및 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

1) 임팩트 투자 이해도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식 내지 이해도 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3.7/5점)로 나타났으며, 63%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임팩트벤처가 생각하는 일반 투자 대비 임팩트 투자의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목적성’, ‘사회성과 측정’,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투자 집행 또는 성과 관리’ 등이 있었다. 제1절에서 논의한 임팩트 투자의 개념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와 비교해 볼 때, 본 설문에 참여한 임팩트벤처들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추측된다.

〈표 3-26〉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

질문 내용	설문 결과(5점 만점, n=19)		
	평균	4점 이상	2점 이하
귀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3.7	63%	5%

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임(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지 않다).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표 3-27〉 임팩트벤처가 생각하는 일반 투자와 임팩트 투자의 차이점

질문: 임팩트 투자와 일반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팩트 투자는) 잠재시장을 키우는 투자임.
(임팩트 투자는) 투자 목적성에 있어 차이를 가짐.

〈표 3-27〉의 계속

질문: 임팩트 투자와 일반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팩트 투자는 재무성과와 사회성과 두 가지 성과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임.
(임팩트 투자는) 수익과 더불어 사회에 대한 기여 또한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임.
(임팩트 투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짐.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인 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투자 결정시 피투자기업이 얼마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이를 측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임.
일반 투자는 재무적 관점에서 이익만을 위한 투자를 강조한다면, 이와 달리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투자라고 생각함. 임팩트 투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투자를 받은 임팩트 기업들이 더욱 많은 임팩트를 창출해낼 수 있고, 창출된 임팩트는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임.
사회성과를 실제 투자 시에 기업가치에 반영하는지의 여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추정 여부
(임팩트 투자는) 임팩트를 지수/정량화하고, 기술/업체 평가 시에 재무적 지표와 함께 고려함.
(임팩트 투자는) 기존 투자에 사회문제 해결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추가됨.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포함해서 투자를 결정함.
단기적 자금 회수에 대한 기대 수준, 평가 지표(사회적가치 평가 반영 유무)의 차이 등
일반 투자가 영리적 및 재무적 목적이라면, 임팩트 투자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부분도 고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투자인지, 혹은 임팩트 측정을 통해 (해당 투자가) 기업과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투자인지에 대한 고려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음.
(임팩트 투자는) 재무성과와 더불어 사회성과(임팩트)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진행함.
투자 목적의 차이
평가지표의 다각화 정도
(임팩트 투자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가치 중 일부로 인정된다는 점이 다름.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2) 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

가)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설문 결과 임팩트 투자기관 대상 IR 준비, 자료 발송 및 컨택 등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경험이 있는 기업은 47%(n=19, 미응답 기업 제외)였다.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어려움으로는 임팩트 측정의 어려움, 성장성 및 기술력에 대한 증명, 일반 투자자들의 소셜벤처 및 임팩트 투자에 대한 편견 등이 있었다.

임팩트벤처가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정리한 결과는 <표 3-28>과 같다.

<표 3-28> 임팩트벤처가 경험한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어려움

질문: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임팩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임팩트 투자에 관한 편견
소셜벤처에 대한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고,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사회적 임팩트 측정(예측)의 어려움
임팩트 투자가 산업이나 이슈에 따라 주체가 결정되어 편향된 임팩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임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균형
성장 가능성 증명
투자 평가 시 임팩트에 대한 투자판별기준은 비교적 상세한 편이나, 그에 비해 시장성, 기술성 등 전문적인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평가 및 결과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나)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

설문 결과 본 설문 참여 기업 중에서 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기업은 53%(n=19, 미응답 기업 제외)였으며, 임팩트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어려움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재무적 가치와 기술력,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의 어려움, 자신들이 만드는 임팩트에 대해 재무

적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비교 시,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기업이 창출하는 임팩트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적/기술적 타당성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작업이 임팩트벤처에게 중요한 도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임팩트벤처가 임팩트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정리한 결과는 <표 3-29>와 같다.

<표 3-29> 팩트벤처가 경험한 임팩트 투자 유치 과정 어려움

질문: 임팩트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업 가치 디스카운트
개발 진행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 가치와 임팩트를 투자자에게 재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설명
임팩트 투자사 부족 및 컨택포인트 탐색의 어려움
투자 과정에서의 어려움보다는, 투자 이후 사업모델의 구체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개인적인 역량 및 지향점과 사업화의 방향을 맞춰나가는 것).
ESG에 대한 흐름이 오기 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이 어려움으로 다가옴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사업운영과정/결과에) 반영하는 것
일반 기관 IR과 같이 기술/재무적 성장성을 (임팩트 투자자에게) 증명하는 것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다) 임팩트 투자사의 지원 요소에 대한 기대 수준 및 만족도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 및 임팩트 투자사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 유치 전후의 임팩트 투자사의 지원 요소에 대한 기대수준 및 만족도를 측정했다. 측정 항목은 투자의 일반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자금지원, 기술지원, 네트워킹 지원의 3가지 요소로 구성했다.

각 지원 요소에 대한 기대 수준 대비 만족도 상승 여부를 분석한 결과,

자금지원은 기대 수준(3.6/5점)만큼의 만족도 수준(3.6/5점)을 보였으며, 6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지원(마케팅, R&D 등)은 처음부터 기대수준(2.5/5점)이 낮았으며 사후 만족도는 기대수준 대비 약간 높은 수준(2.7/5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트워킹 지원 요소에 대해서는 기대수준(3.7/5점)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 수준(3.2/5점)을 보였다. 특히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40%, 부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20%로 나타나는 등 투자 유치 전의 기대 수준에 비해 투자 후의 불만이 높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임팩트 투자사의 자금/기술/네트워킹 지원에 대한 임팩트벤처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네트워킹 지원 부분에서 향후 임팩트 투자사들의 분발이 요청된다.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사의 지원 요소에 대한 기대 수준 및 만족도 측정 결과는 <표 3-30>과 같다.

<표 3-30>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사에 대한 기대 수준 및 만족도

		설문 결과(5점 만점, n=10)		
		평균	4점 이상	2점 이하
임팩트 투자사의 자금지원	투자 유치 전 기대 수준	3.6	60%	10%
	투자 유치 후 만족도	3.6	60%	0%
임팩트 투자사의 기술지원 (마케팅, R&D 등)	투자 유치 전 기대 수준	2.5	20%	60%
	투자 유치 후 만족도	2.7	10%	30%
임팩트 투자사의 네트워킹 지원	투자 유치 전 기대 수준	3.7	60%	0%
	투자 유치 후 만족도	3.2	40%	20%

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임(5점=매우 높음/매우 만족, 4점=높음/만족, 3점=보통, 2점=낮음/불만족, 1점=매우 낮음/매우 불만족).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라)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 시장에 대한 인식 수준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향후 2년 이내 임팩트 투자 유치 계획 유무를 파악한 후, 목표 유

치 금액 및 임팩트 투자 유치 가능 예상 확률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향후 2년 이내 임팩트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 기업은 79% (n=19, 미응답 기업 제외)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중 과반(60%)이 20억 원 이상 규모의 임팩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임팩트벤처를 대상으로 향후 2년 이내 임팩트 투자 유치 가능 예상 확률을 측정한 결과, 26%(n=19, 미응답 기업 제외)의 기업이 임팩트 투자 유치 가능 확률을 20%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42%의 기업이 60% 이상의 확률로 임팩트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37%의 기업이 임팩트 투자 유치 확률을 80% 이상으로 대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본 설문문에 참여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가치 및 재무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임팩트 투자 자금의 공급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임팩트벤처를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 유치 기회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3.4점(5점=매우 그렇다)의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4점

〈표 3-31〉 임팩트벤처의 향후 2년 이내 임팩트 투자 유치 목표 금액 및 임팩트 투자 유치 예상 확률

(단위: %)

		설문 결과
향후 2년 이내 임팩트 투자 유치시 임팩트 투자 유치 목표 금액(n=15)	1억 미만	0
	1억 이상 5억 미만	20
	5억 이상 10억 미만	0
	10억 이상 20억 미만	20
	20억 이상	60
	합계	100
향후 2년 이내 임팩트 투자 유치시 임팩트 투자 유치 예상 확률(n=19)	20% 미만	26
	20% 이상 40% 미만	16
	40% 이상 60% 미만	16
	60% 이상 80% 미만	5
	80% 이상	37
	합계	100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이상 답변의 비율은 58%로 과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나 유치 가능 여부에 대한 확신 수준은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팩트 투자 자금 공급 수준은 수요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단, 본 조사의 대상인 임팩트벤처들의 경우 임팩트벤처 전체 모집단 가운데서 사회적 가치 및 재무적 가치 창출 역량이 뛰어나고 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이 많은 편에 속하는 상위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임팩트벤처 전체에 대한 일반화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표 3-32〉 설문 대상 임팩트벤처의 임팩트 투자 유치 기회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질문 내용	설문 결과(5점 만점, n=19)		
	평균	4점 이상	2점 이하
귀하는 임팩트벤처들의 입장에서 현재 임팩트 투자 유치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4	58%	26%

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임(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라. 임팩트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임팩트벤처의 제안

임팩트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임팩트벤처의 제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3〉 임팩트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임팩트벤처의 제안

질문: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임팩트벤처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모험자본 성격의 Public & Private Funds 확대
임팩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과의 관계 형성
임팩트 펀드 중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에 임팩트 위성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함.
임팩트 투자사의 액셀러레이팅 지원 활성화

〈표 3-33〉의 계속

질문 :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임팩트벤처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십시오.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대상) 롤모델 기업의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 사업가의 등장이 필요함
임팩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 대중에게 더욱 알려질 필요가 있음(지금은 임팩트 투자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고 생각되어 일반 투자와의 차별점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음).
2019년 기업 운영 초기 당시 시드 단계의 임팩트 투자 제의를 받았었으나, 당시 임팩트 투자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관련 성공사례가 부족했던 관계로 투자 제의를 거절했음. 앞으로는 임팩트벤처를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임팩트 투자에 대한 임팩트벤처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실제 모태펀드에서 조성된 자금이 실제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리스크가 없어지고, 자유로운 자금 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임팩트를 해석함에 있어 더욱 다양한 관점이 필요함.
사람이나 기술에 투자한다는 표현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투자사와 벤처 간의 임팩트를 보는 기준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봤음. 투자사와 벤처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만남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임팩트를 측정하고 측정 방법을 탐색할 때에 설문조사, 데이터 등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해당 자료들은 설명하고자 하는 임팩트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보다는 간접적인 근거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음.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팩트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말로 뛰는 데이터(현실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다양한 실험과 실패, 과정을 모두 의미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함,
기술 기반 비즈니스 외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임팩트 투자사가 임팩트벤처가들이 겪는 심리적 소진, 그로 인한 주변 관계 및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일반 벤처 운영도 힘든 여정이지만,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에 비교적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 임팩트벤처가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하는 임팩트 투자사가 많아지면 좋겠음.
탄소중립 시대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와 ESG 그린 본드의 발행이 필요함.
임팩트 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으리라 생각됨. 그중에서도 (1) 임팩트를 좀 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가진 소셜벤처들에 비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풀고 있는 조직들은 저평가되는 문제, (2) (임팩트 투자에서) 투자와 스케일업이 지나치게 큰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 (3) 임팩트 측정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이해와 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케팅용으로 임팩트가 소용되는 문제 등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함.

〈표 3-33〉의 계속

질문: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임팩트벤처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요.
(지금까지 임팩트 투자는) 고용노동부 모태펀드의 주목적 정도로 활용되다보니, 막상 투자 검토 과정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던 것 같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자료: 임팩트벤처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소 결

1. 연구 결과의 시사점

제3장에서는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개요를, 제2절에서는 공급 측에 해당하는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 조사 결과를, 제3절에서는 수요 측에 해당하는 임팩트기업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가.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제고

본 연구에서는 임팩트 및 임팩트 투자의 개념을 글로벌 컨센서스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임팩트 투자자 및 임팩트벤처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향후 이러한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향후 이를 임팩트벤처 및 임팩트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여 ‘임팩트’ 또는 ‘임팩트 투자’라는 동일한 단어에 대해 모두가 같은 또는 거의 유사한 개념적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임팩트 투자자와 임팩트벤처 간의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생태계 차원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조사 결과 임팩트 투자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특히 임팩트 투자 관련 정책금융을 원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또는 세미나/워크숍 등을 제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벤처들은 사업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투자자들에게 임팩트의 의미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면 이는 지나친 부담이다.

또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시민사회, 대중, 언론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필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학계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경영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학회의 경우 현 회장(성균관대 한상만 교수) 및 차기 회장(명지대 김재구 교수, (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리더십 그룹의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들의 주도하에 다양한 분과의 경영학자들이 모여 ‘지속가능경영포럼’을 결성하고 관련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임팩트 및 임팩트 투자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위한 연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대중 인식 제고 등에 있어서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나. 임팩트 투자자의 역할

임팩트를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임팩트 투자자는 투자 대상 임팩트벤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임팩트 개념을 논의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 최대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어떤 지표를 통해 언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벤처들 중에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비즈니스모델 및 스케일업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유는 빠른 성장을 통한 재무 성과 제고 및 투자금 회수에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임팩트 투자자는 재무성과와 사회성과를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 및 스케일업

의 중요성 역시 사회성과의 제고 가능성과 연계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성과가 귀속되는 타깃 수혜자 그룹이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그룹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를 임팩트벤처와 임팩트 투자자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임팩트 투자사는 임팩트벤처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등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을 주관하는 정부 또는 자금제공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하면 임팩트벤처들이 양적 측면의 사회성과 제고를 위한 스케일업(scale-up)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의 사회성과 제고를 위한 스케일딥(scale-deep)을 같이 추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 투자사는 임팩트 측정 결과에 일회일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임팩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혹시 기대만큼 임팩트가 창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함께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파트너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온 교훈과 시사점을 생태계와 문서 또는 워크숍/세미나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면 한국 임팩트 생태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임팩트벤처의 역할

임팩트벤처들의 경우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임팩트를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임팩트를 정의 및 해석하고, 측정 및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사회문제를 풀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소셜미션에 반영하여 문서화해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의 혁신성과 시장규모, 재무적 타당성, 재무적/사회적 지속가능성, 확장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임팩트 투자자를 비롯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고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솔루션의 실행을 통해 발생하는 임팩트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선정, 측정 방법/시기 결정 등 ‘임팩트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설계를 사전에 철저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한국의 임팩트생태계는 이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부/공공기관 및 비영리 재단 등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해당 교육 콘텐츠를 문서나 동영상의 형태로 정리하고 축적하여 공공재의 형태로 공유한다면 임팩트생태계 차원에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콘텐츠 플랫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ESG 콘텐츠 플랫폼 등이 좋은 사례이다.

최근 임팩트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임팩트워싱에 대한 경계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임팩트벤처에게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자신들의 솔루션이 창출하는 임팩트를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측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숨기는 대신, 이를 공개하고 다른 이들의 지혜와 도움,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임팩트벤처는 오히려 자신들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 임팩트 생태계 차원의 고민

첫째, 임팩트 측정 및 관리 방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 투자 개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컨센서스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가치의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이다. 임팩트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의 재무성과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성과(justificable social performance)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성과가 측정되지 않는다면 임팩트 투자 자체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팩트 측정 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푸는 조직의 임팩트가 저평가될 수 있다. 또한 임팩트를 화폐가치화하거나 SROI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대용치(financial proxy)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의 임팩트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생태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및 자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생태계 차원에서 임팩트 리터러시(impact literacy)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팩트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업무를 대학, 연구소, 전문 컨설팅 기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의 내재화가 어렵다. 따라서 임팩트 관련 정보를 읽고(문해), 쓰고(생산), 말하고(소통) 들을 수 있는(청해) 임팩트 리터러시 역량을 내부 임직원들이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팩트 생태계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들을 적극 유입하여 생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모험자본 성격의 공공/민간펀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를 통해 임팩트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션 드리프트, 임팩트 위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 및 구성원들의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임팩트 생태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임팩트 투자는 하이테크(high tech) 기반 비즈니스에 다소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임팩트벤처의 의견이 있었다. 사회혁신의 중요한 속성인 효과성과 효율성(Phills et al., 2008)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자라면 로테크(low tech)의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100억 원 이상의 매출 규모로 성장한 소셜벤처 동구밭이 좋은 사례이다. 이외에도 투자를 통해 청년사업가 유입,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 해결 등 보다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생태

계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생태계 차원에서 임팩트벤처 기업가들이 겪는 심리적 소진, 그로 인한 주변 관계 및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직 운영도 쉽지 않을뿐더러 재무성과와 사회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며, 사회적 관심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임팩트벤처 기업가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경우 아쇼카, 에코잉그린 등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바(신현상 외, 2021),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공공기관, 재단/비영리조직 등에서 협력하여 이 부분을 메꿔 나갈 필요가 있다.

2.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 목적상 임팩트 투자 유치 준비 또는 실제 유치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SK/사회적가치연구원, 현대차 정몽구재단, KOICA 등의 프로그램에서 입상 또는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던 임팩트벤처들이 설문대상에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본 설문결과 해석 시 생존편향(survival bias)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벤처 전반의 의견 또는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5천여 개의 임팩트벤처에 대한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향후 이루어질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제 4 장 결 론

제1절 종합 검토

1.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

제2장에서는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 기업까지 포괄하여 자료 조사(archival research)를 통해 소셜벤처 정책체계를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소셜벤처의 명명(naming)과 벤처기업법 포섭, 소셜벤처 판별기준 도입과 개정,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도입,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의 제도화(SVI)를 다루었다. 제2절에서는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 지원, 초기 지원, 지원기관 양성, 소셜벤처를 포함한 일반 벤처 지원(TIPS), 창업 지원 종합 체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기업법과 서울시 육성 정책,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소셜벤처 정책체계의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강한 국가(strong state),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통제(control)와 개입(intervention)이다. 개발국가 이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기 시절 강력한 관료제의 개입과 통제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성장·발전을 이끈 원동력을 제공한 국가 산업 정책

(industrial policy)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담론이다(Amsden, 1992; Evans, 1995). 소셜벤처 정책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해 보면, 이러한 개발국가 모형이 여전히 소셜벤처와 같은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에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셜벤처를 명명(naming)하고 판별하며 분류(categorizing)하고 체계화하여 정책 대상(target)으로 편입시키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개발국가 정책 집행 방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은 진보적인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럿 존재한다.

소셜벤처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아래에서부터 위로(bottom-up)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조차 위에서 아래로(top-down)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분류하며 이에 여러 공적 지원(public support)이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소셜벤처 정책체계에서 행정 부처의 역할 분산이 두드러진다.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 협동조합(기획재정부)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 자활기업(보건복지부) ·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조직별 소관 부처가 다르고 법인격에 대한 인정 · 인증 절차와 관련 지원이 얹혀 있어 사업과 사회혁신의 관점이 아니라 법 · 제도의 관점에서 촛촛하게 설계된 그물망에 포섭되어야 비로소 공공 영역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제도화 · 지원 방식은 소셜벤처가 싹을 틔우는 데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핵심이자 바탕인 사회적 상상력을 제약하고 틀에 가두어 질식시킬 위험이 크며 그 자체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셜벤처 평가체계를 보면 제조업(M) 사회성 · 혁신성과 서비스업(S) 사회성 · 혁신성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데, 다학제 · 다분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업모델의 경우 여러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이분법적 평가체계에서는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되어 있다. 아울러 설립 · 성장 유인(incentive) 형성에 개입하여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맞는 조직 형태와 구조 선택이 아니라, 창업 이후 생존까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불리는 초기 난관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공공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 조직 유형과 구조를 선택하게 만드는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면, 하버마스의 식민화(colonization) 개념과 베버의 철창(iron cage) 개념을 빌려 설명할 수 있다. 하버마스가 말한 대로 경제 체계(시장), 행정 체계(국가)와 같은 시스템(system)이 사적·공적 영역의 생활 세계(lifeworld)를 점차 체계적으로 포섭하여 식민화하는 것, 베버가 말한 대로 합리화(rationalization)에 기초한 관료제가 철창이 되어 인간을 제약하는 것, 이 모두 개발국가 정책체계에 대한 묘사가 될 수 있다. 생활세계에서 창발된(emerging)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행정 체계의 명명·판별·지원에 포섭되어야만 생존에 유리한 것,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소셜벤처의 혁신성·사회성이 제조업·서비스업 영역으로 협소하게 나뉘어 비교될 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모두 생활세계 식민화와 합리적 관료주의 철창의 실증적 사례이다.

물론 개별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통해 생존하면서 성장의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례도 여럿 존재하겠지만,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체계의 탄생과 형성은 그 자체로 여러 위험을 안고 있으며, 특히 행정 부처의 역할 분산에 따른 조직 법인격 간 정책지원 차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왜곡 가능성이 크다.

2.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

제3장에서는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개요를, 제2절에서는 공급 측에 해당하는 주요 임팩트 투자기관 조사 결과를, 제3절에서는 수요 측에 해당하는 임팩트벤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가.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제고

본 연구에서는 임팩트 및 임팩트 투자의 개념을 글로벌 컨센서스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임팩트 투자자 및 임팩트벤처들의 의견을 조사

해 본 결과, 향후 이러한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향후 이를 임팩트벤처 및 임팩트 투자자들과 공유하여 ‘임팩트’ 또는 ‘임팩트 투자’라는 동일한 단어에 대해 모두가 같은 또는 거의 유사한 개념적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임팩트 투자자와 임팩트벤처 간의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생태계 차원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조사 결과 임팩트 투자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특히 임팩트 투자 관련 정책금융을 원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또는 세미나/워크숍 등을 제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벤처들은 사업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투자자들에게 임팩트의 의미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면 이는 지나친 부담이다.

또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시민사회, 대중, 언론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필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학계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경영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학회의 경우 현 회장(성균관대 한상만 교수) 및 차기 회장(명지대 김재구 교수, (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리더십 그룹의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들의 주도하에 다양한 분과의 경영학자들이 모여 ‘지속가능경영포럼’을 결성하고 관련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임팩트 및 임팩트 투자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위한 연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대중 인식 제고 등에 있어서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나. 임팩트 투자자의 역할

임팩트를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임팩트 투자자는 투자 대상 임팩트벤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임팩트 개념을 논의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 최대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어떤 지표를 통해 언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벤처들 중에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비즈니스모델 및 스케일업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유는 빠른 성장을 통한 재무성과 제고 및 투자금 회수에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임팩트 투자자는 재무성과와 사회성과를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 및 스케일업의 중요성 역시 사회성과의 제고 가능성과 연계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성과가 귀속되는 타깃 수혜자 그룹이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그룹인 경우가 많아 수익모델 구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임팩트의 질적 측면, 즉 스케일업(scale-deep)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무성과와 사회성과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를 임팩트벤처와 임팩트 투자자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임팩트 투자사는 임팩트벤처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등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을 주관하는 정부 또는 자금제공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하면 임팩트벤처들이 양적인 스케일업만이 아니라 질적인 스케일업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 투자사는 임팩트 측정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임팩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혹시 기대만큼 임팩트가 창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함께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파트너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온 교훈과 시사점을 생태계와 문서 또는 워크숍/세미나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면 한국 임팩트 생태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임팩트벤처의 역할

임팩트벤처들의 경우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임팩트를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임팩트를 정의 및 해석하고, 측정 및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사회문제를 풀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소셜미션에 반영하여 문서화해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의 혁신성과 시장규모, 재무적 타당성, 재무적/사회적 지속가능성, 확장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임팩트 투자자를 비롯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고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솔루션의 실행을 통해 발생하는 임팩트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선정, 측정 방법/시기 결정 등 ‘임팩트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설계를 사전에 철저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한국의 임팩트생태계는 이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부/공공기관 및 비영리 재단 등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해당 교육 콘텐츠를 문서나 동영상의 형태로 정리하고 축적하여 공공재의 형태로 공유한다면 임팩트생태계 차원에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임팩트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임팩트워싱에 대한 경계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임팩트벤처에게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자신들의 솔루션이 창출하는 임팩트를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측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숨기는 대신, 이를 공개하고 다른 이들의 지혜와 도움,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임팩트벤처는 오히려 자신들의 진정

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 임팩트 생태계 차원의 고민

첫째, 임팩트 측정 및 관리 방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 투자 개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컨센서스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가치의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이다. 임팩트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의 재무성과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성과(justificable social performance)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성과가 측정되지 않는다면 임팩트 투자 자체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팩트 측정 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푸는 조직의 임팩트가 저평가될 수 있다. 또한 임팩트를 화폐가치화하거나 SROI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대용치(financial proxy)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의 임팩트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생태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및 자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생태계 차원에서 임팩트 리터러시(impact literacy)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팩트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업무를 대학, 연구소, 전문 컨설팅 기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의 내재화가 어렵다. 따라서 임팩트 관련 정보를 읽고(문해), 쓰고(생산), 말하고(소통) 들을 수 있는(청해) 임팩트 리터러시 역량을 내부 임직원들이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팩트 생태계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들을 적극 유입하여 생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모험자본 성격의 공공/민간펀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를 통해 임팩트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션 드리프트, 임팩트 위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 및 구

성원들의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임팩트 생태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임팩트 투자는 하이테크(high tech) 기반 비즈니스에 다소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임팩트벤처의 의견이 있었다. 사회혁신의 중요한 속성인 효과성과 효율성(Phills et al., 2008)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자라면 로테크(low tech)의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저온숙성 비누를 생산하여 최근 100억 원 이상의 매출 규모로 성장한 소셜벤처 동구밭이 좋은 사례이다. 이외에도 투자를 통해 청년사업가 유입,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 해결 등 보다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생태계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생태계 차원에서 임팩트벤처 기업가들이 겪는 심리적 소진, 그로 인한 주변 관계 및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직 운영도 쉽지 않을뿐더러 재무성과와 사회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며, 사회적 관심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임팩트벤처 기업가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경우 아쇼카, 에코잉그린 등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바(신현상 외, 2021),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공공기관, 재단/비영리조직 등에서 협력하여 이 부분을 메꿔 나갈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1. 사회적 경제에 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영향평가〉 도입

우선,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 조직 유형

에 기반한 소관 부처 지정과 관련 정책 마련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조직 형태와 법인격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사회성, 혁신성에 초점을 맞춘 기준 확립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는 (가칭) <사회영향평가> 도입을 권고한다.

가. 조직 유형별 구분의 맹점

기존의 조직 유형 (형태와 법인격) 구분과 판단은 여러 맹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영리(for-profit), 비영리(non-profit) 구분이 적용된 전통적인 조직 유형 구분법은 실제로 조직의 모델과 그 사회적 외부효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즉, 투자자(예: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구분은 해당 조직의 지배구조 차원에선 중요한 구분 기준이지만, 그 조직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선 무의미한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ETS의 경우 비영리 조직이지만 TOEFL, AP, SAT, GRE 등 관련 시험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ETS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지만, 앞서 언급한 행위들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즉,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교육 관련 혁신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산가의 조세 회피 목적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 등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지대 추구 행위를 위한 조직이다.

〈표 4-1〉 비영리와 영리 조직 구분의 맹점

	지대 추구 (rent-seeking)	혁신 (innovation)
비영리 (non-profit)	- 시험 주관사 - 조세 회피 재단	- 혁신형 자선재단 - 비영리벤처
영리 (for-profit)	- 자원 독점	- 혁신형 벤처 - 소셜벤처

자료: 저자 작성.

반대 사례로, 영리 기업임에도 ESG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도 존재할 수 있다(예: Patagonia). 본 연구의 대상인 소셜벤처 또한 그러한 기업 유형이다.

영리 조직이면서도 혁신을 추구하지 않고 지대 추구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인허가권 로비로 자원 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전형적이다.

아울러 비영리 조직이면서 돌파형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에 투자하는 대형 자선 재단(예: 빌 게이츠 재단) 혹은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비영리 스타트업 등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종합하면, 비영리(non-profit)는 선하고, 영리(for-profit)는 조직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주장, 비영리는 혁신적이지 못하고 돈을 쓰는 조직이고, 영리는 혁신적이면서 돈을 버는 조직이라는 주장은 일종의 선입견 내지 편견일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조직 형태와 법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를 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를 창출하면서 혁신 활동을 하는 조직인지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중요하다. 즉, 조직의 형식적인 지배구조, 법인격, 유형과 그 조직이 경제 체제와 사회에서 갖는 위상과 역할, 의미와 영향은 별개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

나. 사회적 경제에 관한 통합적 접근

앞서 언급한 영리-비영리 구분법에 기반한 편견과 선입견은 한국 사회적 경제 정책체계에도 스며들어 있다. 서구에서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민간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에 인증제를 도입하고 명칭 사용 권리를 부여하면서 취약계층 고용 혹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리 조직의 사업 모델과 활동을 심도 있게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손쉬운 행정적 접근이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관련 정책 또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

합을 기계적으로 구분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법인격을 기반으로 이른바 사회적 기업과 같은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분류하고 접근하면서 공공 조달 입찰 관련 혜택 등을 부여하는 관료주의적 접근이다.

이러한 영리-비영리 구분법에 기반한 편견과 선입견,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 조직 유형에 기반한 소관 부처 지정과 관련 정책 형성은 위험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는 새로 창업한 일반협동조합이 관련 혜택을 누리 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하는 공공 영역과 사회적 경제를 후원하는 민간 영역의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y) 활용 전략에 능숙한 주체와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 환경에서 유리하며, 정보에 어둡거나 그렇지 못한 주체와 조직들은 소외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일반 벤처로 창업한 기업가가 소셜벤처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 모델에 일부 사회적 요소를 가미하고 관련 지원을 신청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조직 유형별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펼쳐지면서 칸막이 만들기와 구별 짓기로 인한 시장 왜곡과 불필요한 정체성 정치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 〈사회영향평가〉 도입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직 유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양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증가분 또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감소분을 계량화하는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지원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이를 인정하고 지원해줄 수 있다. 조직을 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책 지원 자격을 결정하지 않고, 사업 모델의 사회적 가치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책 지원을 연계한다면 조직 간 형평성(equ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법인격과 주체들 간 차별과 중복 지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고용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이른바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유형별 소관 부처 지정과 정책 마련과 같은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조직 자체의 사회성, 혁신성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이에 연동된 정책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 그 주체로는 개별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의 정책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적절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증거 기반 정책 지원(evidence-based policy support) 체계에서 성과 측정·평가에 능숙하지 못한 조직들을 위해 조직 유형별 지원 체계 일부 유지, 성과 측정·평가 관련 교육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표 4-2〉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제언

정책 분야	정책 제언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팩트벤처 투자 펀드에 출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간접) - 임팩트벤처 투자 시 일반벤처 투자와 유사한 세제 혜택(직접)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KPI/IRR 활성화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시스템 구축(사회영향평가)
비영리·금융 생태계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비영리재단 PRI & MRI 규정 신설 및 투자 허용 - 금융회사 임팩트 투자비율 의무화 - 개인투자자 참여 허용 개방형 임팩트펀드(자산운용사) - 임팩트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 시장 활성화
임팩트 투자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역량 강화 지원 - 보증 프로그램 개선(민간 임팩트 투자자에 대한 보증) - 민간 임팩트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지원 확대
공공자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의 민간 임팩트 투자생태계 활성화 미중물 역할(촉매 자본, 선손실, 인내자본, 이자율보조, 기술지원, 위험자본 등) - 민간자금 조성 시 공공자금 매칭 비중 확대(대손 부담) - 성장기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 자본 공급

자료: 저자 작성.

앞서 언급한 정책 제언이 한국 사회적 경제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제도(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회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임팩트벤처), 가능성 있는 임팩트벤처에 꾸준히 투자하여 사회성과를 제고하는 것(임팩트 투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임팩트 투자 생태계 조사에서 파악된 정책 수요 중 연구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위 <표 4-2>의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세제 혜택, 제도 개선, 비영리·금융 생태계 참여 활성화, 임팩트 투자기관 지원, 공공자금 참여 등을 통해 한국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향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사회적 가치 지표(SVI) 활용 매뉴얼』.
- 금융위원회(2021),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 김단비·김형진·장선문·최근형·강보라(2019), 「소셜임팩트의 주류화」,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아산나눔재단.
- 모건 사이먼(2021),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선택, 임팩트 투자』, 김영경·신지윤·최나영 옮김, RH 코리아.
- 문철우(2021), 『임팩트 경영과 임팩트 투자를 위한 IMP 임팩트의 정의와 측정』,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신현상·서현선·안지혜·홍주은·김하은·김소진·박세은·주세진·이재아·오경택(2021), 『사회혁신가의 여정과 역량 모델링』, 아산나눔재단 연구보고서, 아산나눔재단.
- 안토니 레빈·제드 에머슨(2013), 『임팩트 투자: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신일·권영진 등 옮김, 에딧더월드.
- 이본 쉬나드(2020),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영래 옮김, 라이팅하우스.
- _____(2021), 『파타고니아 이야기: 자연에게 배운, 영원히 지켜내야 할 것들』, 추선영 옮김, 한빛비즈.
- 이철영·임창규(2019), 『임팩트 투자, 투자의 미래』, 스리체어스.
- 주성수(2020), 『글로벌 개발 임팩트 투자』, 한양대학교 출판부.
- _____(2020), 『사회적 가치 임팩트 투자』, 한양대학교 출판부.
- 중소벤처기업부(2019),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안내서』.
- 한국금융연구원(2020), 『금융브리프』 29(3), pp.26~27.
- 한동숙(2019),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관한

가이드』,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Amsden, A. H.(1992),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orzaga, C. and G. Galera(2012),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Cooperatives for a Better World*, Euricse.
- Defourny, Jacques and Marthe Nyssens(2012), "Social Cooperatives: When Social Enterprise Meets the Cooperative Tradition,"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Desjardins(2011), "Québec's cooperatives and Mutual Aid Organizations: An undeniable economic force," *Perspective*(21: Fall 2011).
- Donaldson, T. and L. E. Preston(1995), "The Stakeholder Theory of the Corporation: Concepts, evidence, and implic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1), pp.65~91.
- Evans, P. B.(1995), *Embedded Aut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eeman, R. E.(2010),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obal Impact Investment Network(2020),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2020*, GIIN.
- Hansmann, H.(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vard Business Review on Corporate Responsibility*(2003),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 Höchstädter, A. K. and B. Scheck(2015), "What's in a Name: An analysis of impact investing understandings by academics and practitione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2, pp.449~475.
- ILO(2009),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
- _____(2013), *Resilience in a Downturn: The power of financial coe-*

operatives.

Johnson, A. G. and W. F. Whyte(1977), "The Mondragon System of Worker Production Cooperativ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1(1), pp.18~30.

MacPherson, Ian(2012), Cooperatives' Concern For The Community: From Members Towards Local Communities' Interests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Cooperatives for a Better World," Venice, Italy: March 15-16, Euricse Working Paper Series ISSN 2281-8235).

Pastor, Lubos, Robert F. Stambaugh, and Lucian A. Taylor(2021), "Sustainable Investing in Equilibrium,"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2(2), pp.550~571,

Phills Jr., J. A., K. Deiglmeier, and D. T. Miller(2008),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6(4), pp.34~43.

Polanyi, K.(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utnam, R. D.(2001),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OPOONG(2019), 「소풍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리포트 IAR」.

Sparkes, R. and C. J. Cowton(2004), "The Maturing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 review of the developing link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52, pp.45~57.

Whyte, W. F.(1995), "Learning from the Mondragón Cooperative Experienc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0(2), pp.58~67.

Whyte, W. F. and J. R. Blasi(1982), "Worker Ownership, Participation and Control: Toward a theoretical model," *Policy Sciences* 14(2), pp.137~163.

Whyte, W. F. and K. K. Whyte(1988), *Making Mondragon*, Cornell University Press.

Zamagni, S. and V. Zamagni(2010), *Cooperative Enterprise: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 執筆陣

- 이상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신현상(한양대학교 교수/임팩트리서치랩 대표)
- 김윤정(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김하은(임팩트리서치랩 연구원)

사회적 경제의 임팩트 투자 모델 탐구

- | | |
|-----------|--|
| ▪ 발행연월일 | 2021년 12월 24일 인쇄
2021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황 덕 순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 ▪ 조판 · 인쇄 |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1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545-1